

中國大陸의 韓人 社會

金 光 億

(서울大學校 社會大 教授)

<目次>	
I. 序 言	
1. 문제의 제기	IV. 行政 및 經濟組織
2. 자료 및 조사방법	V. 文化의 諸側面
II. 韓人社會의 形成	1. 教育
1. 移住過程과 性格	2. 言語
2. 韓人社會의 現況	3. 風習
3. 大同大隊 朝鮮小隊	4. 宗教와 信仰
III. 社會構造	VI. 文化變動과 民族正體性
1. 人口 및 家族形態	VII. 結 語
2. 親族과 婚姻	附 錄

I. 序 言

1. 문제의 제기

臺灣을 제외한 中國大陸에는 1978년 현재 168만명의 韓人們이 살고 있으며 (國家民委民族問題 五種叢書編輯委員會 1981), 이는 중국대륙에 존재하는 54개의 少數民族集團 가운데 인구의 크기로 8번째에 속하고, 海外에 居住하는 우리 同胞 가운데 가장 큰 집단이 된다. 이들은 모두 이차대전 이전 특히 日帝時代에 韓半島로부터 移住해 간 사람 및 그 자손들로서 보통 2~3세대에 걸쳐서 살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4~5세대에 걸쳐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들은 1949년 中國大陸이 共產化된 以來 새로운 社會體制와 經濟構造 속에 들어가면서 여러가지 社會・文化的 環境에서의 變化를 겪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더우기 少數民族으로서 漢人社會 속에서 異質的인 文化와 끊임없는 接觸과 交流를 하여 왔을 것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정치・경제・사회체제와 이민족과 이질적 문화요소 속에서 韓國民族 固有 혹은 傳統적인 文化와 社會的 制度들이 어떻게 變化했는지 그 過程과 結果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것은 變化 뿐만 아니라 傳統性의 持續에 대한 研究도 포함하는 것이며, 社會變動과 文化接變, 그리고 民族正體性(ethnic identity) 및 民族間의 문제(ethnicity)에 관한 종합적이고 실험적인 연구가 될 것으로서 社會人類學의 諸理論을 평가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本研究는 또한 中國內의 韓人 集團 혹은 社會의 分布狀態와 生活樣狀을 살펴봄으로써 海外同胞에 대한 政府의 政策樹立과 施行에 지침이 될 지식과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많은 수의 이들 교포들과 國內의 親知들 사이에 書信이 왕래되고 있으며 정부의 對海外放送은 이들 교포들에게 청취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보다 효과적인 작업은 이들의 생활상 및 사회구조의 변화, 문화변동의 실태에 대한 파악을 바탕으로 할 때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러나 이 조사 연구의 직접적인 동기는 上記한 문제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방면에 대한 조사가 극히 미미한 상태에 있어 왔다는 사실에 있다. 가장 큰 원인은 中國社會 및 學界가 정치적인 영향 아래 對外的으로 폐쇄되어 왔다는 데에 있다. 이 결정적인 제약성은 외국학자에 의한 조사가 허락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문화와 학술의 차원에서의 교류는 정치관계의 개선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 때에 더 직접적이고 現地調查의 성격을 띤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본 조사는 따라서 본격적인 조사 연구를 위한 기초작업 및 예비조사의 성격을 지닌다. 즉 한편으로는 中國居住韓人の 社會와, 그들의 生活의 諸分野에 걸친 現狀을 파악하고, 文化變動의 範圍와 性格, 그리고 民族正體性의 유지와 표현 양식을 분석해 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문제점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자료 및 조사방법

現地調查가 불가능한 현재로서는 조사를 文獻資料와 여행담의 수집을 통한 간접적인 접근과 최근 귀국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面談을 통한 深層調查에 의거한다. 국내의 자료로서는 玄圭煥의 『韓國流移民史』(語文閣, 1967)가 유일한 研究書로 되어 있다. 이 책은 중공 뿐만 아니라 미국과 사할린 등의 주요 한국인 집단거주 지역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주로 2차대전 이전의 이민역사를 조명하는 데에 치중하고 있고 따라서 자료도 오

래된 것들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중공으로부터 귀환한 몇몇 동포들의 간단하고 단편적인 글을 함께 수록함으로써 최근 현황에 대한 자료 보충을 꾀하고 있으나, 분석이나 해석의 수준에서 수집된 것이 아니며 또한 전반적인 사회와 생활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이 불가능하다. 그 외에 간간히 신문이나 잡지를 통하여 이들 귀환자의 보고문, 그리고 재미 한국교포들의 북간도지방 여행담과 여행기 및 기록물이 발췌, 소개됨으로써 간단하게나마 간도지방이라고 통칭되는 延邊地區의 韓人 생활의 모습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해당 지역의 韓人們이 상당한 정도의 전통적 생활양식과 문화 요소들을 지켜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지만 거의가 한 개인이 짧은 시일을 통하여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인상적이고 단면적으로 서술한 것들로서 총체적인 맥락 속에서의 연구가 되지 못한다고 보겠다. 이와 함께 외국인, 특히 일본 학자들의 延邊地區 訪問記들이 근래에 출판되었는 바 개인의 인상과 중공당국의 공식 안내서의 내용을 혼합한 것으로서 교육, 경제, 문화에 관한 최근의 상태를 간단하게나마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본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중공의 社會科學院 民族學研究所가 주관이 되어서 편찬한 『少數民族』(1981) 가운데 ‘朝鮮族’篇을 입수하게 되었다. 이것은 전편이 韓人 거주지역의 사회적 및 자연적 환경에 관한 개관, 韓人의 일상생활 풍습과 문화적 특성, 조선족 자치주가 성립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 농업, 공업, 임업 등 산업 및 경제분야의 발전상, 그리고 교육·문화 및 타민족과의 관계 등의 항목에 초점을 맞춘 다섯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서술되어 있다. 이것은 정치적인 색채가 가미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성공적인 사례만을 골라서 긍정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서 현상의 한 측면만을 볼 수 밖에 없다는 제약성이 있으나, 韓人 社會의 여러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기술을 한 공식적인 최근의 자료로서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완역하여 본 연구 보고서에 부록으로 첨부하고자 한다. 주로 延邊朝鮮族自治州를 중심으로 東北滿州地域 全體에 대한 조감도를 보여주는 이 글은 통계적이고 결과론적인 설명에만 치우쳐서 하나의 韩人 集團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으며 어떤 변화를 겪어 나왔는가 하는 데 대한 과정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일정한 크기의 집단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보고서는 上記한 諸資料를 참고하여 中國의 韩人 社會에

대한 일반적인 모습의 이해와 함께 본인의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정 지역에 대한 고찰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서 KBS 와 서울신문사가 공동 주관하고 있는 ‘共產圈同胞 血緣 찾아주기 운동’에 관련된 자료의 이용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담당자들의 거절로 인하여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신문지상에 공개된 人的 事項과 記事, 그리고 특히 국내외에 현존하는 귀환동포를 대상으로 한 深層面談을 통하여 얻어진 자료들이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행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관찰의 대상을 遼寧省 撫順縣과 吉林省 盤石縣의 韓國人 集團으로 잡으려 한다. 이 지역은 中國人們이 주된 인구를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서 두 개의 民族과 文化가 共存하고 있으므로 行政的인 境界보다 民族 혹은 文化的 境界地域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이는 실제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대단히 흥미있을 뿐 아니라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조사가 될 것이다.

II. 韓人社會의 形成

1. 移住過程과 性格

韓人們이 中國으로 移住를 시작한 것은 17세기 때부터로 올라간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국경선에 연한 지역, 즉 두만강 전너 있는 지역에 한국인이 농사를 짓고 살고 있었던 것을 말하며, 이는 당시 朝鮮朝와 清朝 사이에 국경 및 국토에 관한 異見에 따른 해석일 것이다. 즉 中國側으로 보면 이는 한국인들의 이주가 될 것이고 한국측으로 보면 원래의 한국영토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거주 인구도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 같다. 中共의 民族學研究所의 『少數民族』에 의하면, 보다 대대적이고 본격적인 한국인의 이주는 19세기 중엽 이래 이루어졌으며, 특히 1869년 함경도지방이 대홍작을 당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두만강을 건너 간도지방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끊임없는 이주가 이루어졌고, 1900년 초기에서 2차대전 이전에 걸친 日本의 植民統治 기간 동안에 韓國全境에 걸쳐서 延邊地方 뿐만 아니라 滿州와 中國大陸 곳곳으로의 대대적인 移動이 일어났다(이러한 移住의 역사적 과정에 대하여서는 玄圭煥[1967]을 참조).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들중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으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만주와 간도지방에 남아 있어서 1957년 중공당국의

집계에 의하면 1,255,551명(日本『朝日年鑑』1960년도판)이 중공 전역에 산재해 있었다. 최근 중공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1978년 현재 韓人 인구는 168만명으로서 吉林省에 104만명, 黑龍江省에 43만명, 遼寧省에 17만명, 그 외 北京, 上海 등 여러 곳에 소수의 韓人們이 거주하고 있다(國家民委民族問題五種叢書編輯委員會 1981)

이들 韓人们的 이주 및 정책과정은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韓人们에 의하여 개척된 지역의 형성이다. 즉 17세기 이래로 두만강을 건너 오늘날, 圖門市와 延吉市를 중심으로 한 소위 北間島 地方은 특히 접경지역의 함경도 사람들이 개척하여 정착하기 시작하였던 지역으로서 자연히 중국인은 없었고 순수한 韓人居住 지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 지역은 韓人에 의해 개발된 가장 오래된 지역으로서 현재 延邊朝鮮族自治洲가 되어 있고 인구의 절대다수가 韓人이며 학국의 연장(延張)을 방불케 한다. 두번째 유형은 日本政府에 의해 강제로 집단지역을 형성케 된 것을 들 수 있다. 日帝의 식민지 수탈로 인하여 영세농민들은 남부여대하여 북간도로 혹은 만주로 건너가서 황무지와 야산을 개간하여 소규모 집단으로 산재해 있었다. 이들은 주로 黑龍江省과 遼寧省에 걸쳐 살았는 바 당시 獨立軍과 中國의 抗日軍에게 협력을 많이 했고 실제로 抗日勢力を 위하여 연락망, 정보망, 보급망 등을 형성하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었다. 따라서 日本軍은 당시 빈번히 출몰하는 馬賊團으로부터의 보호 및 치안유지라는 구실을 내세워 산재해 있는 韩人们을 한곳으로 集結시키게 되었다. 많은 귀환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본 경찰과 군대는 주로 일본 경찰의 관할하에 있는 中國人 村落에 들어가 中國人們을 강제로 추방시키고 거기에 韩人们을 入住, 定着시켰다고 한다. 이는 항상 일본의 경찰과 군대의 감시하에 한국인들을 끌어들여, 동시에 中國人과 韩人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이간정책의 효과를 얻기 위한 작업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 日本경찰력이 감당하기에는 韩人 및 중국인의 숫자는 너무나 많았으므로 100~200여호를 단위로 하여 넓은 지역에 분산시킬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이들 새로운 집단들은 자치적인 생활권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는 현재 滿州 일대에 걸쳐 형성되어 있는 韩人 사회의 분포의 근본 조직이 되었다. 세째 유형은 일단 濬陽, 撫順, 長春, 吉林, 하르빈 등 주요 中國人 都市와 工業, 商業地域에 거주하던 韩人们이 2차대전 전후의 社會的 不安과 經濟的 狀況의 급변으로 인하여 한국

이나 기타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再次 移動을 하게 될 때 친지와의 관련을 통하여 인접지역의 농촌이나 개간지로 들어가서 새로운 집단을 형성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들은 10호에서 많으면 30~40호씩 한인들만의 집단을 이루는 경우도 있고 기존의 중국인 촌락에 들어가서 사는 경우도 있어서 延邊地區 와 달리 중국인과 한인이 혼합되어 있는, 民族的으로 또 文化的으로 接境地帶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2. 韓人 社會의 現況

1978년 현재 朝鮮族으로 분류되는 이들 中共居住 韓人은 약 168만명으로서 행정구역상 吉林省에 104만명, 黑龍江省에 약 43만명, 遼寧省에 약 17만명이 있어서 거의 滿州의 東北部 地域에 散在해 있는 셈이다. 나머지 약 4만명은 北京, 上海 또는 몽고접경지역 및 山東과 廣東省의 주요 도시에 100여명에서 수천명에 이르는 다양한 인구수를 보이면서 거주하고 있다. 그 중에서 韓人이 集中的으로 살고 있는 가장 큰 지역은 「吉林省 延邊 朝鮮族 自治州」로서 약 71만 4천명이 있으며 이는 중국거주 韩人 전체 수의 43%를 차지한다. 이 延邊自治州는 吉林省의 東南部 一帶로서 延吉市와 圖門市의 두개의 市와 延吉, 和龍, 安圖, 瑲春, 汪清, 敦化 등 6개의 縣으로 이루어진, 두만강과 백두산, 서쪽으로 쟁가리호수, 북쪽으로 敦化를 거쳐서 東北으로 소련과 접경을 하고 있는 면적 약 4만 5천 백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역이다(國家民委 1981). 중국 변방에 설치된 29개의 民族自治州 가운데 하나인 이 延邊自治州는 1952년 9월 3일에 성립되었으며 전 영역의 80% 가 林野地帶로서 농업, 임업, 광업 등이 산업과 경제의 근간을 형성한다. 총 170만 인구 가운데 漢族(中國人)이 53%를 차지하고 韓國人이 43%를 차지하여 약 73만명이 된다. 解放前에는 이곳 인구의 80%가 한국인이었으나 1963년 日本人 安藤彥太郎氏가 이 지역을 방문한 후 쓴 기행문에 의하면 당시 인구 1백 12만 5천 4백 명 가운데 한인이 半以上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安藤, 1963). 15년이 지난 1978년도의 통계에서 한인과 중국인 수의 비율이 달라진 것은 한국인의 인구가 감소된 것이 아니라 중국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상대적인 비율인 것이다. 즉 인구는 자연증가를 보였지만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많은 수의 중국인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해 왔으며 동시에 中蘇國境問題로 인하여 中共軍의 파견수가 급격히 증가된 것이다. 이러한 전

체 구성인구의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韓人 수의 비율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급 기관에 종사하는 韩人 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각급 지도간부의 53%, 州와 縣의 행정기관요원의 50%가 韩人에 의하여 점유되고 있으며 중국어와 한국어가 공용어로서 병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각급 학교들이 韩人만을 위한 것이 따로 독립되어 있어 교과과정이 모두 한국어와 한글로 교수되고 있고 한국어로 된 지방신문과 방송국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은 한국사회가 그대로 옮겨져 있는 상태로서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채소밭 옆에 굴뚝을 가진 초가집이나 기와집이 있고 길에는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韩牛에 달구지를 매어 달고 끌고가는 풍경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으며, 한국어 방송과 유행가와 민요를 이집 저집에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상생활의 양식과 문화의 전통성은 延邊自治州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대동소이하게 유지되고 있는 듯 하다. 滿州의 西南部인 潘陽, 撫順, 按山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長春을 거쳐 흑룡강성의 하르빈, 치치할에 이르기까지의 線은 중국인과 한인이 혼합되어 살고 있는 지역으로서 보다 관찰의 단위를 작게 해서 본다면 많은 수의 다양한 크기를 가진 韩人 集團들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이들로부터 고국에 있는 친척에게 부쳐오는 편지의 주소에는 朝鮮大隊, 集鮮大隊, 朝鮮族大隊 혹은 東明, 東盛, 朝陽 등의 말이 붙은 大隊나 小隊가 많이 보이는 바, 이들은 모두 朝鮮族들로만 구성된 집단임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비단 인구구성 뿐만 아니라, 黑龍江省이나 遼寧省에도 독자적인 한국어판 신문이 있으며 곳곳에 한국인 국민학교, 중고등학교가 있고 이들 교원양성을 위한 사범학교도 있다. 또한 모든 한국 전통적 물자들, 예컨대 고무신, 요강, 장독, 호미, 낫 등은 모두 일정 지역에서 만들어져서 전 지역으로 판매되는 유통망을 형성하고 있다.

3. 大同大隊 朝鮮小隊

中共居住 韩人の 社會 및 文化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本研究報告書는 어느 한 지역의 韩人 集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遼寧省 撫順縣 小東公社 大同大隊를 선정하였다. 이 大同大隊는 撫順市에서 동북쪽으로 백여리 떨어져 있는 農村으로서 遼河江의 한 지류인 揮河의 상류를 이루는 작은 강을 끼고 산간평야로서 6개의 자연부락으

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자연부락은 20~40여戶 쪽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大同大隊의 한 小隊로 편입되어 있다. 전체 戶數는 190호이며 인구는 약 1,000명으로 대부분이 中國人이다. 제 6 소대는 35戶중 25戶가 韓人으로서 1980년에 人民公社와의 타협 끝에 이들 25戶의 韓人集團이 분리하여 제 6 소대로서 朝鮮小隊라고 이름짓고 나머지 15戶의 中國人은 이웃 제 5 소대로 편입되었다. 이와 인접한 同一公社 소속의 長達大隊의 7개 小隊中 2個의 小隊는 韓人集團으로서 약 70여戶가 된다. 그리고 남쪽으로 80여리 떨어진 곳에는 撫順縣 大南公社 小野 朝鮮大隊가 있고 북쪽으로 300여리 떨어진 곳에 吉林省 盤石縣에는 많은 朝鮮族 大隊들이 있다.

大同大隊는 원래 행정제도상 撫順縣 塔谷鄉 大同村으로 불리우던 곳이었으나 1959년에 人民公社制로 개편되면서 小東公社大同大隊로 되었다. 이곳은 마차나 트럭만이 다닐 수 있는 극히 사정이 좋지 않은 산간도로가 있었으나 1975년에 처음으로 도로확장 사업을 벌여서 1978년부터 하루에 두번씩 지방버스가 다니게 되었다.

이곳에 韩人们이 거주하게 된 역사적 배경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提報者の 한 사람인 K할머니의 個人歷史를 참고하여 어느 정도 짐작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K할머니는 경북 의성에서 대구로 시집가서 아들 둘 과 딸 둘을 낳았다. 약령시장에서 약방을 경영하던 남편이 죽은 후 가세가 기울어졌다. 마침 친정 동생이 빈곤한 가정경제로 인하여 만주로 갔었는데 몇년 후인 1938년에 돌아와서 친정식구(어머니와 동생들)들을 이끌고 만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 그는 현재 長達大隊에 속한 지역까지 농토를 찾아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이미 10여戶의 한인들이 이웃 10여戶의 중국인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는 곧 그 일대의 토지 소유자인 중국인과 義兄弟를 맺었고 그의 주선하에 토지를 얻게 된 것이다. K할머니도 친정을 따라 왔으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撫順市에 남아서 한편으로 하숙업을 하면서 살았다. 곧이어 전쟁이 나고 세상이 뒤숭숭하여 K할머니와 많은 한국사람들이 친지와의 연고지를 찾아서 농촌으로 들어갔는 바 K할머니는 친정 식구가 있는 長達로 갔다. 이미 長達에는 30~40戶의 한인이 있었으며 大同村에는 약 50호의 한인이 있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인구의 대부분은 중국인이었고 한인들은 중국인들로부터 토지를 얻어서 조금씩 농사를 짓었다. 주로 중국인들은 밭을 경작했고 한인들은 농사를 짓었다. 1945년 해방이 되

면서 K 할머니의 아들과 딸은 고국으로 돌아왔고 K 할머니와 16살 나던 막내딸만 잠시더 있었으나 곧 共產化가 되면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다. 막내딸은 18살에 30리 떨어진 大同村으로 시집을 갔다.

중국대륙이 共產化된 후 八路軍이 들어와서 모든 私有財產을 몰수하고 토지도 몰수하였다. 집과 가재도구는 골고루 나누어 주었고 농사는 集團的으로 하도록 했다. 따라서 논농사를 지을 줄 모르고, 거머리가 무서워 논에 들어가기를 꺼려하던 중국인 농부들은 군인과 당 간부로부터 매를 맞아 가면서 모설기를 하게 되었다. 이무렵 많은 한국사람들은 보다 많은 토지를 찾아서 밤중에 다른 지역으로 도주해 갔다. 따라서 처음에는 50~60여호 되던 大同村의 한인은 점차 줄어서 현재는 25호가 되었다.

III. 社會構造

1. 人口 및 家族形態

朝鮮小隊은 25戶의 韓人們로構成되는 바, 정확하지는 않으나 提報者の 기억에 의하면 12戶가 南韓出身의家長 혹은 戶主를 가지고 있고 13戶가 北韓이 고향인 사람들이라고 한다. 이 12戶의 南韓出身들은 出身道別로 보면 慶北이 5戶, 慶南(釜山을 포함하여) 4戶, 忠淸北道와 南道, 그리고 全南이 각각 1戶씩이다. 그리고 13戶의 北韓出身들은 平北이 3戶, 平南이 2戶, 黃海道가 4戶, 기타 提報者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집이 4戶가 된다.

韓人の 人口는 약 200명이라고 하는 바 이를 토대로 추정하면 가구당 8명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숫자는 실제적인 다양성에 비추어 해석해야 할 것이다. 즉 어떤 집은 10명 혹은 12명씩 확대 가족을 이루고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3~4명으로 된 핵 가족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대개 이들은 祖父母와 孫子까지 3代에 걸쳐 함께 사는 확대 가족의 형태를 취한다. 가장 큰 이유는 분가를 하려면 집을 지어야 하는데 私有의 땅이 없으므로 인민공사로부터 땅을 빌려야 한다. 집을 짓고, 매년 사용료를 내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이들은 원래의 방을 칸막이를 한다거나 새로이 방한칸을 더 만들거나 하여 살게 된다. K 할머니는 딸의 집에서 살았는 바, 딸 외손자가 결혼했을 때 새로 방을 더 마련할 공간적 여유가 없었다. 한 가구당 일정량의 토지가 '自留地'라는 명목으로 주어지는데 이는

채소를 가꾸어 식구끼리 소비하는 데 사용되므로 이 自留地에 집을 지을 수가 없어서 결국 大隊의 허가를 얻어서 땅을 빌려서 집을 짓고 분가해 나갔다. 현재 50代 이상의 부모들은 자녀가 5~6명씩 있어서 결혼한 자녀들은 여자는 남편집으로 가고 남자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마을에 새 집을 지어 분가하거나 다른 소대로 전입되어 나가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중공당국으로부터 인구조절정책에 의하여 가족계획운동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중국인인 경우 자녀 1명씩, 한인인 경우에는 2명씩 낳을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증가하는 식구들을 수용할 가옥이 모자라므로 현재 大隊에서는 새로 주택들을 지을 계획을 하고 있다. 이는 小隊별로 積立金을 만들어서 국가로부터 건물대지를 구입하도록 한 것이다. 이 건물대지를 위하여서는 기존의 농토를 사용하든가 새로운 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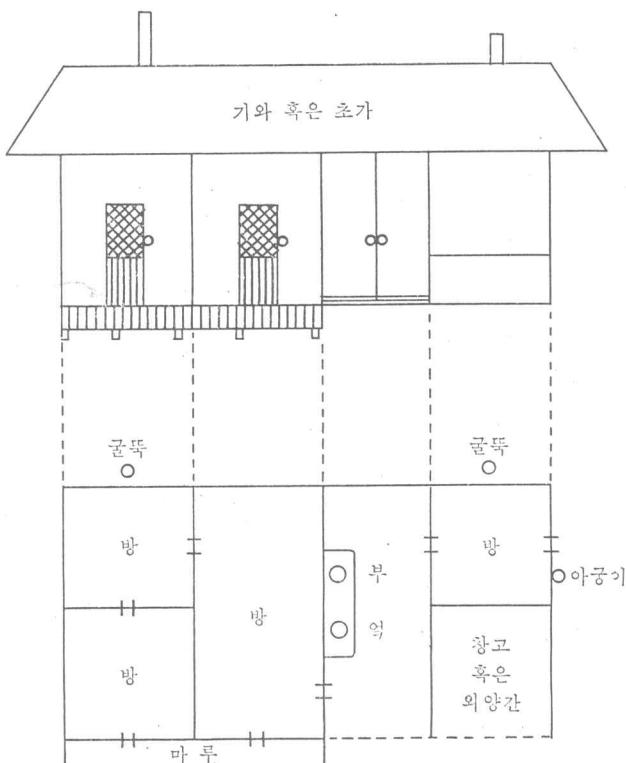


그림. 한인들의 가옥구조

을 개간해야 하므로 많은 돈과 시간이 요구된다. 朝鮮小隊는 3년 계획으로 새로 聯立住宅을 건축하기로 결정하였다.

家屋은 대개 벽돌로 벽을 만들고 초가나 기와로 지붕을 잇는다. 대청마루는 없으며 방 앞에 조그마한 뒷마루를 한다. 방바닥은 온돌을 깔고 굴뚝을 낸다. 대개 한 집은 방이 네 개로 되어 있다(그림 참조). 집 뒤나 앞에는 自留地로서 채소밭이 있는 것이 보통이다.

2. 親族과 婚姻

경우에 따라서 옛날 族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으나 이것은 아무런 이용도가 없다. 또한 많은 친척이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氏族이나 同族組織 같은 것은 없다. 그 대신 결혼으로 맺어진 친척, 즉 姻戚은 여러 생활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자면 吉凶事에 친족의 개념은 外戚, 姻戚도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제사를 지낼 때도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사람은 모두 참석하며 이들 사이에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 동성동분 뿐만 아니라 심지어 同姓끼리도 혼인은 꺼려 한다. 배우자의 出身地는 별로 문제삼지 않는다. 通婚圈은 상당히 넓은 편이다. 이것은 한국사람은 한국사람끼리 결혼해야 한다는 강한 의식 때문에 적절한 대상자가 있으면 지리적인 거리에 구애하지 않고 혼인을 하기 때문이다. 중공정부로부터 남자는 만 25세, 여자는 만 24세부터 결혼이 허락된다. 따라서 적령기의 처녀 혹은 청년이 어디에 있는지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타지역으로 시집간 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K 할머니의 딸 외손자인 南國鎮(28세, 朝鮮中學校 體育教師)은 25세 때 결혼을 하였다. 당시 그는 국가 장학금을 얻어 北京師範大學에 유학가게 되었으나 父母가 모두 南韓出身인데다가 계속 南韓의 親戚과 편지왕래가 있었으므로 불합격되었다(K씨의 설명). 그래서 너무나 슬픈 나머지 모든 일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있었으므로 가족회의를 열어 결혼을 빨리 시켜 주기로 하였다. 24세가 되는 여자를 구하려면 중 마침 大同에서 80리 떨어진 大南公社 朝鮮大隊에 시집을 간 사촌누이로부터 그 곳에 색시감이 하나 있다고 알려 왔다. 그래서 國鎮은 하루의 말미를 얻어서 大南의 사촌누님 댁에서 색시와 선을 보았다. 저녁때 불빛 아래 잠깐 앉아 있었지만 원래 수줍은 성격으로 바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누님의 소개니 팬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결혼할 의

사를 누님에게 알리고 돌아왔다. 집에서는 곧 이웃 사람을 중매장이로 내세워서 색시집에 연락하여 청혼하였고 이어서 색시와 그 부모, 삼촌, 이모 등이 와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약혼을 하였다. 그러나 처음 색시를 본 國鎮의 식구들과, 환한 낮에 색시를 보게 된 國鎮 자신도 그 색시가 너무나 못생겼음을 발견하고 화가 나서 파혼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北韓出身인 색시집에서는 만약 결혼하지 않으면 음독자살하겠다는 협박을 가해 왔고, 주위의 권고도 있고 해서 마침내 혼례식을 하였다. 혼례식은 大同과 長達共同의 朝鮮中學校 강당에서 校長의 주례로 했으며 신랑은 양복을 입고 신부는 흰 치마저고리에 면사포를 썼다. 친척으로는 신랑의 父系親, 즉 아버지의 형제, 자매 및 그 자녀, 아버지 형제의 부인의 친정식구, 그리고 母系親, 즉 의삼촌, 이모 및 그들 배우자들의 친정식구, 의할머니와 그의 친정식구와 친지 등이 참석하였고 신부 측에서도 비슷한 범위의 친척이 왔다. 그 외에 한인 및 중국인 친구들이 30리, 80리 혹은 백리 떨어진 곳에서도 왔으며 모두들 1元, 3元, 5元씩의 축의금을 내었다. 4元은 좋은 숫자가 아니라고 해서 쓰지 않는다. 축의금액과 명단은 장부에 기록해 뒀다가 다음 기회에 받은 쪽에서도 그만큼 부조를 하게 된다. 예물 교환은 없었으며 식이 끝난 후 집에서 잔치를 하였다. 전에는 정부로부터 일체의 잔치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약 3년 전부터는 잔섭을 하지 않아서 여러 행사가 되살아났다. 잔치는 국수와 술과 돼지고기를 장만하였는데 돼지는 한마리를 잡았다. 돼지는 전체 무게를 달아서 1근에 50角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신부는 옷장 1개, 이불 1채, 요강, 미싱, 세수대야 등을 가지고 왔고 신랑측에서도 옷장 1개, 이불 1채, 라디오 등을 마련했고, 거울과 탁상시계가 선물로 들어왔다. 잔치를 포함한 결혼비용은 약 300元이 들었는 바 부조금으로 충당되지 못하는 것이 보통으로 人民公社나 大隊의 公積金 혹은 은행으로부터 빌려 쓴다. 이들 신혼부부는 첫 두해를 신랑의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았고 삼년째에 둘째 아들이 또한 결혼하게 되어 방이 모자라므로 人民公社의 허락으로 새 집을 지어서 분가해 나갔다. 벌써 딸을 두명 낳았는 바 아들이 꼭 있어야 하지만 더이상 아기를 낳으면 엄한 벌금을 내어야 하므로 고민거리이다. 많은 한인들은 아들이 최소한 한명은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고, 정부에 대하여 특별 배려가 있기를 탄원했으나 아직 해답이 없다. 國鎮의 동생은 트럭 운전사로서 부인은 300여리나 떨어진 吉林省 盤石縣의 集鮮大隊에서 왔으며 한국에서의 고

향은 慶南이다. 이의 중매는 國鎮의 외할머니(K씨)의 친정 동생의 딸이 長達에서 盤石으로 시집을 갔으므로 그를 통하여 맺어지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혼의 전과정은 소개와 선보기, 중매하기, 잔치 등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형식을 그대로 갖추고 있으며, 同姓은 기피하고 식구중 누구와도 가까운 친척, 인척, 외척관계에 있는 사람과는 친척관계가 강화되어 결혼을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선택 범위는 더욱 확대되며 출신지역이나 교육배경 등은 크게 문제삼지 않음을 짐작케 한다. 동시에 민족의식이 강하여 瀋陽이나 吉林市에 한두 경우 中國人과 結婚한 예가 있으나 大同, 長達 등의 농촌지역에서는 韓·中人 사이의婚姻은 아직 없다.

IV. 行政 및 經濟組織

중공의 행정단위는 생산활동을 위한 단위와 일치하여 있다. 省과 縣이라는 전통적인 행정단위 밑에는 농촌생활의 기반인 농업생산 小隊, 大隊 및 人民公社가 있는 것이다. 小隊는 20~30가구의 자연부락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집에서 살며 토지를 경작한다. 6~10개의 소대가 모여서 大隊가 되는 것으로 그 크기는 다양하다. 경우에 따라 아주 큰 촌락은 그 자체가 하나의 大隊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10~20개의 大隊가 모여서 하나의 人民公社를 이루게 되는 바, 이는 鄉, 村, 里(路)의 전통적인 행정구역과 비슷하다고 하겠다(이에 대하여는 Robinson, 1964; Pelzel, 1972 참조).

원래 1948년도에 토지개혁운동이 끝나면서 각 부락 단위로 互助組에 가입하였으나 공산당 간부의 농업기술이나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별 효과가 없었다. 이에 1956년에는 몇개의 互助組가 한데 합쳐서 단위 農業合作社를 만들었으니 이는 오늘날의 大隊보다 큰 규모의 것으로서 매일 수백명의 社員들에게 할 일을 분담하고 지시하고 감독과 채점을 한다는 것이 곤란하였다. 공산당 간부는 외부인으로서 지역 사정에 어두울 뿐 아니라 노동력을 정확히 관리하기에는 절대적으로 간부의 수가 적었다. 따라서 농민과 간부들간의 관계는 협약하여 당간부 한명이 長達에서 살해되는 사건까지 나게 되었다. 당시에는 모든 생산물이 農業合作社로 거두어지고 全社員은 일정량의 배급에만 의존하게 되었다. 따라서 長達의 주민이 가진 소나 농기구는

大同의 농사에도 사용되었지만 그에 대한 별도의 보수는 없었으며, 더욱기 밭농사를 주로 하는 中國人과 논농사를 주로 하는 韓人們 사이에 農業投資에 대한 각각 다른 평가를 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에 맞는 보수를 黨에 요구하게 된 것이다. 특히 韩人们은 쌀이 더 비싸고 또한 재배에 많은 노동력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배급식의 질과 양이 중국인과 동일한 데 대하여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였다.

이리하여 1958년 이 지역은 人民公社化 되어서 大同과 長達은 각각 다른 公社와 大隊에 분리되어 소속되었다. 人民公社制度를 통하여 기본 생산단위가 小隊로 되었고 소대는 일정한 양의 생산을 公社에 바치고 나머지는 隊員에게 分配하는 일종의 자유경쟁적인 성격의 경제체계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小隊 및 大隊의 지도간부는 그 지역 사람 가운데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大同大隊의 제 6 소대는 원래 韩人과 中國人으로 혼성된 소대로서 K 할머니의 사위인 南氏가 소대장이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벼재배를 통하여 보다 많은 생산실적을 올리고 또한 부지런히 일하는 데 비하여 중국인 隊員들은 계을러서 組長의 감독이 소홀하면 수수밭에 들어가서 낮잠을 자거나, 논에 들어가기를 꺼려하므로, 노동량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小隊內에서 均分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分離를 주장하여 작년(1980)부터 25戶의 韩人은 朝鮮小隊로獨立하게 되었다.

小隊員은 戶當 집 한채와 自留地라고 부르는 일정량의 땅을 분배받아서 개인용도의 채소 등을 가꾼다. 이 自留地는 小隊가 共同으로 경작하는 전체 토지의 3~4%가 된다. 大同과 長達의 韩人 小隊는 경작지의 3/4이 모두 논이다. 自留地에는 이를봄에서 여름까지는 고추, 마늘, 파, 가지 등을 재배하고 늦여름부터 가을까지는 무우와 배추를 재배하여 김장을 담근다.

小隊는 생산의 가장 기본단위로서 생산총량의 30%는 公糧稅라고 하여 국가에 세금조로 바치고 나머지 70%를 人民公社에서 처리를 하게 된다. 이것은 쌀이나 다른 곡식 등 그해 생산된 농산물로써 하게 된다. 실제로 처리되는 곳은 小隊 및 大隊의 수준에서 하는 바 一定量을 人民公社에 바치면 노동에 직접 참여한 社員 일인당 곡식 450斤과 각각 일한 시간과 양(工日이라 함)을 계산하여 돈으로 혹은 쌀로 지불받는다. 대개 농사일에는 하루 노동에 1元 정도이며 트럭이나 경운기 운전사 등은 1元 50角 또는 1元 80角을 받는다. 따라서 1년에 보통 250元~300元 정도 수입이 있다. 학교 교사는 월

급이 30元이었으나 1980년부터 50元으로 인상이 되었다. 小隊는 동시에 생 산량의 얼마를 公積金이라는 명칭의 公共基金을 마련하는 데 쓴다. 이 公積金은 늙은 사람이나 병든 사람, 길 고치는 것, 마을 위생사업 등등에 쓰여 진다. 노동에 대한 댓가는 일부는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쌀로 환산하여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면 자기들의 쌀이나 곡식을 糧食局에 팔게 된다. 즉 옷을 사입거나 다른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일단 현금을 만들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개인과 개인끼리 쌀을 팔고 사는 일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2~3년에 들어와 쌀도 자유시장에서 팔아도 괜찮게 되었다. 모든 물건과 기타 생산품은 大隊에 있는 合作社 또는 人民公社의 百貨公司(백화점)에서 구입하게 된다. 이 상점에서는 일용잡화를 구입할 수 있는 바 韓人만이 特別히 사용하는 고무신, 요강, 옹기, 냉면, 국수 등도 있다. 사과와 배와 같은 과일도 있으며 간혹 바나나도 살 수 있다. 고기는 소고기 보다 돼지고기가 조금 더 비싼 편이며, 수송시설이 발달되지 않아서 싱싱한 생선은 없다. 다만 소금에 절인 갈치나 고등어 정도가 있을 뿐이다. 물가를 보면 고무신 한 켤레가 약 2元 30角이며, 소주 한병이 1元 50角이다. 치마 저고리는 만들어서 파는 게 없으므로 천을 사서 집에서 만들어 입는다. 양복은 좋은 것은 80~90元하며 보통 50~60元 한다. 먹는 것은 별 부족을 느끼지 못하지만 의류는 품질이 나쁘다. 이러한 공식적인 상점외에 自由市場제도가 있다. 이는 市, 縣, 또는 人民公社의 本部가 있는 비교적 큰 곳에 있는 바, 大同大隊로부터 도보로 약 40분 떨어진 곳에 열린다. 우리나라의 시골장터를 연상케 하는 것으로 길에 개인이 기르거나 재배한 돼지, 닭, 계란, 채소 등을 가지고 나와서 펴놓고 살 사람과 파는 사람이 서로 홍정을 하여 매매가 이루어진다. 이 市場을 이용하면 하루에 20角의 시장세를 내어야 한다. 물건 값은 일정치 않아서 合作社보다 조금 비싸기도 하고 싸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계란이나 닭 등은 合作社보다 조금 비싼데 그 이유는 人民公社의 集團農場에서 다량 생산되는 닭이나 계란보다는 個人에 의해 사육된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관념 때문이다. 그러나 채소는 싱싱하지만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파는 입장이므로 合作社의 값보다 비쌀 수가 없다.

一定量의 基本食糧이 배급되므로 일하는 사람 수가 적은 대신 아이들을 비롯하여 생산노동에 참여하지 않은 식구수가 많은 가족은 자연히 생계비가 부족하다. 따라서 自留地에 채소를 가꾸거나 계란치기 등을 해서 自由市場

예 나가 팔아야 하며, 쌀을 糧食局에 팔아야 하고, 이웃이나 은행에서 돈을 빌려쓰기도 한다. 트럭운전사, 경운기운전사, 토목기술자, 공장노동자 등은 모두 大隊 수준에서 고용되며 임금이 日當 1元 80角 정도이므로 한달 월급이 50~60元 한다. 그러나 비숙련 노동자는 1元~1元 20角 정도를 받으므로 30元 정도 별개 된다. 北京이나 天津과 같은 도시에서는 일반적으로 大學卒業 1年後 50~56元의 월급을 받으며 北京師範大學에 教授로 재직중인 한 한국인 金氏는 120元을 월급으로 받는다. 撫順이나 吉林 또는 延邊自治州에는 여러 產業이 발달하여 직업도 다양하지만 大同大隊은 순수한 農業生產을 위한 大隊이며 토목, 농기구나 트럭운전 및 교사, 사무직원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농업활동에 종사한다.

한 小隊에서 다른 小隊 또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기를 원할 때는 원하는 지역이나 小隊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小隊는 群衆評議會가 있어서 이를 심사하고 의결한다. 群衆評議會는 각 가구의 대표가 모이는 일종의 마을 총회와 같은 것으로서 小隊에 관계된 제반 사항을 결정하며 한해의 농사 및 행사를 계획하는 일을 한다. 보통 회의의 주재는 小隊長이 하지만 案件이나 토의 내용에 따라 大隊長 혹은 黨幹부가 참석한다. 小隊員만 참석한 회의는 韓國語를 사용하지만 黨幹부가 中國人인 경우에는 中國語를 한다. 이런 경우 중국말을 잘하지 못하는 늙은이를 위하여 젊은 사람들이 통역을 해 주기도 한다. 群衆評議會와 더불어 調解委員會가 있다. 이것은 각 小隊에서 한 두 명 명망이 높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서 小隊나 大隊 内部에 갈등이 일어나거나 분쟁이 일어날 때 중재를 하는 일을 담당한다. 大隊에는 경찰서가 있고 縣에는 재판소가 있으나 이러한 上級 재판이나 처벌기관에 가기 전에 자체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 당국으로부터 권장되고 있다. 따라서 심한 상해 사건이나 엄중한 형사 사건이 아닌 한 될 수 있는 대로 이를 調解委員會에서 처리되도록 하는 바, 長達의 朝鮮小隊에서는 小隊長이 黨에 대한 忠誠을 표시하기 위하여 生產量의 높은 비율을 적용하고 품질이 좋은 쌀만을 公社에 바치고 쌀을 품질 나쁜 옥수수나 수수로 바꾸어 먹게 하는 등, 小隊員의 원망을 사시 구타를 당했다. 그는 大隊의 경찰에 진정을 했으나 이는 朝鮮族의 體面문제인 동시에 中國인이 이런 일에介入하는 것이 韓人과 中國人과의 관계에도 좋지 않으므로 결국 朝鮮小隊들의 調解委員의 중재를 통하여 구타한 사람들이 사과를 하고, 小隊長을 다른 사

람으로 경질하게 되었다.

V. 文化의 諸側面

1. 教 育

滿州 東北部 全域에 걸쳐서 韓人社會에는 小學校(국민학교)와 中學校(중·고등학교)가 설립되어 있어서 전 교과과목을 한국어로 이수하고 있다. 延邊自治州에는 현재 종합대학인 延邊大學*외에 延邊農學院, 延邊醫學院의 單科大學과, 泰明業餘農學院, 延邊師範學校, 貿易學校, 藝術學校, 衛生學校 등의 專門大學 등이 설립되어 있다. 265개의 中高等學校와 1,398개의 小學校가 있다. 遼寧省, 黑龍江省, 吉林省에도 각각 종고등학교와 사범학교들이 있어서 韓國人學校를 위한 教師養成도 한다. 高等學校를 졸업하고 大學에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延邊으로 가거나 혹은 北京 等 소위 內地의 大學으로 가는데 入學考查는 中國語에 자신이 없는 학생은 吉林省과 黑龍江省에 설치된 朝鮮語使用考查場에서 한국어로 치를 수 있다.

撫順縣에는 大學이 없다. 그러나 大同大隊와 長達大隊가 共同으로 朝鮮族小學校와 中學校를 운영한다. 이곳은 初級中學(우리나라의 中學校) 과정밖에 없으므로 高級中學(高等學校) 과정을 이수하려면 다른 지방으로 가야 하는데 延邊自治州는 거리가 멀어서 吉林省, 海龍縣, 盤石縣 또는 吉林市의 朝鮮族中學校로 간다. 그러나 이렇게 外地로 유학하는 경우는 경제적인 이유로 극히 드물며 대부분이 현지의 初中을 졸업하고 人民公社 社員으로 일을 하게 된다.

교과과목은 朝鮮語, 漢語, 數學, 理科(생물·물리·화학 등), 藝術, 體育 및 技術이 보통이다. 小學校인 경우에는 이순신, 유관순의 이야기, ‘태산이 높다하되……’, ‘아버님 날 낳으시고……’ 또는 ‘한산섬 달밝은 밤에……’ 등의 시조 등을 배우며 初級中學에서는 독립운동, 고구려, 신라 등에 관한 역사 및 모택동 사상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 등을 배운다. 그리고 藝術 과목에서는 고전무용과 양산도타령 등의 민요를 배우며 技術 과목은 주로 농사 일을 거드는 것으로 충당된다. 교과서는 吉林의 朝鮮教育出版社에서 만든

* 鶴嶺雪嶺(1978)에 의하면 교수 464명, 학생 1,400명이며, 교수의 60%가 한국인이다.

책을 사용한다.

2. 言語

70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여전히 자기의 故鄉사투리를 쓰고 있고 40대 이하의 사람들은 중국어와 한국어를 둘 다 구사할 줄 알고 있다. 이는 학교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진 현상일 것이다. 조사과정에서 특기할 사항은 한국인들이 중국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중국어로 된 것도 한국식으로 발음을 한다는 점이다. 즉 合作社, 百貨公司, 大隊 등의 말을 한국식으로 읽는다. 그런데 延邊出身으로 教育水準이 높은 40代 사람들은 한국말 사용에서 몇 가지 특이한 점을 보이고 있었다. 즉 체육로동(육체노동), 고등생활수평(고급생활수준), 중축수평(중간치), 교학(학과), 양백(2백), 뿔차기(축구) 등의 용어를 쓰는 것이었다. 이는 중국어와 북한의 언어사용 형태가 영향을 미친 교과과정의 내용으로 인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비하여 70세 이상된 撫順縣이나 吉林省 서쪽 경계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40~50년전 고유의 각자 고향 사투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왜 중국말을 배우지 않았느냐고 물으면 ‘우리가 배고파서 웠지 너를 되놈 개말 배우려 웠나?’ 하면서 안배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被調査者들 모두가 자신을 가리킬 때는 ‘朝鮮 사람’이라고 한다는 점이 눈에 띤다. 그리고 南北韓을 南鮮, 北鮮으로 구분하는 것이었다.

被調査者가 延邊出身은 40代, 撫順出身은 70代 이상의 사람들에만 국한되어 있으므로 上記한 言語使用이 이들 地域別로 차이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을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言語의 變化는 앞으로 더 광범한 조사를必要로 한다.

3. 風習

平素에는 간편한 작업복을 입지만 명절이나 잔치 혹은 다른 지역의 친지를 방문할 때에는 여자는 주로 치마 저고리를 입고, 남자도 최소한 한복 한벌씩은 장만해 가지고 있다. 갖이나 족두리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그들은 고무신과 바지 저고리, 그리고 조끼를 입고 두루마기를 입는다.

아마도 가장 변함없는 것은 식생활면일 것 같다. 물론 중국음식도 이제는 만들어 먹겠지만 여전히 주식은 쌀밥이며 하루도 빠짐없이 식탁에 오르는

것은 김치라고 한다. 매년 가을이 되면 집집마다 이웃 부인네끼리 모여서 서로 김장담구어주기를 하며 겨울에는 콩을 삶아서 메주를 띄우고 이른봄이 되면 된장과 고추장 담그기에 한동안 바빠진다. 이 외에도 메밀국수, 콩국수, 냉면 등은 이들이 즐겨 먹는 별식이며 설날이면 콩을 넣고 만든 백설기와 호박과 무우를 넣고 만든 훈떡, 식혜, 오곡밥 등을 먹는다. 평소에는 김치 외에는 무우생채나 나물무침 등을 먹지만 명절이나 잔치 때에는 파전, 빙대떡, 호박전 까지도 만들어 먹는다. 식사때는 한국의 농촌과 마찬가지로 등그런 상에 둘러 앉아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며 각각의 밥그릇에 담아 먹는 집도 있고, 또는 상 한가운데에 커다란 양푼에 밥을 그득히 담아 놓고 숟가락으로 떠먹는 집도 있다.

전에는 경제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생일이나 결혼잔치가 없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공공연히 잔치를 해도 黨에서 간섭하지 않는다. 아기를 낳으면 금줄치는 습관은 없어졌지만 뚫잔치는 크게 해 준다. 수수경단과 인절미를 만들고 실태래를 아기 목에 걸어주며 친지들을 초청하여 국수를 먹고 술을 즐긴다. 전에는 집에서 ‘탁주’를 빚어 먹었지만 지금은 ‘술공장’이 없어지고 ‘합작사’에서 소주 등을 사먹는다. ‘북선’ 사람들은 좁쌀에 고추가루를 비벼서 만든 합경도식 식혜를 즐겨먹고 ‘남선’ 사람들은 ‘감주’를 해 먹는다. 中共의 民族學研究所의 보고서(1981)에 의하면 과일 가운데 高麗果라는 것이 朝鮮族의 特產物 중의 하나로 되어 있는 바, 이곳 大同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한다. 아마도 延邊地域에만 산출되는 과일인 듯하다. 추석에는 송편을 빚어서 중국사람들의 月餅과 바꿔 먹기도 한다.

가옥은 벽은 벽돌로 하며 지붕은 기와나 초가를 잇는다. 추운 지방이므로 벽이 두껍다. 외양은 정통 한국식은 아니지만 부엌과 몇개이 방이 일자식의 긴 집으로 배열되어 있고 뒷마루를 올라서면 방문을 열게 된다. 난방은 온돌식으로 부엌 아궁이에 나무나 석탄을 때고 그 옆로써 ‘구들’을 덮힌다. 방바닥은 세멘트포대 종이에 콩기름을 묻혀서 바르고 그 위에 앉는다. 안방은 부엌과 통하는 것으로 가장 크며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곳이 된다. 낮은 장롱 위에 이불을 개켜 놓고, 그 옆에는 앉은뱅이 책상과 재봉틀, 라디오 등이 놓여 있는 것이 전형적인 안방 풍경이다.

전통적인 명절은 설, 정월 대보름, 오월 단오, 팔월 추석 등이다. 설날에

는 세배를 드리며 ‘윷치기’(윷놀이)를 즐기며 여자들은 널뛰기도 한다. 대보름 날에는 찰밥을 먹고 아이들은 불놀이를 한다. 설날과 추석에는 조상에게 茶禮를 지내는데 특별한 음식은 없고 명절에 식구들이 먹을 음식을 상에 놓고 절만 한다. 가장 크고 재미있는 행사는 단오와 추석이다. 단오때는 여자들의 그네뛰기와 남자들의 씨름대회가 있기 때문이다. 상품도 푸짐하여 人民公社에서 씨름장사에게는 돼지 한마리, 그네타기 일등에는 라디오를 준다. 吉林省의 盤石縣의 朝鮮大隊에서는 돈이 많아서 씨름에는 소 한마리, 그네에는 쟁봉틀이 상품이라고 한다. 추석때에는 축구시합이 있다. ‘뿔차기’라고 부르는 이 축구는 한국사람들이 가장 즐기는 운동으로서 小隊별로 팀이 구성되어 있다. 특히 몇년전부터는 人民公社 주최로 10월 1일 중공의 건국을 기념하는 그들의 國慶節기념 축구시합이 열리는데 大同大隊에서는 朝鮮小隊가 代表팀이었고 이웃 長達에서는 朝鮮小隊가 대표팀이 되어서 결승에서 양쪽 韓人們끼리 결전을 하게 된 일도 있었다. 이 때를 전후하여 國慶紀念 운동회가 朝鮮中學校에서도 열린다. 인근의 모든 韩人們은 점심을 싸들고 남녀노소 모두 모여서 하루를 즐긴다. 이 날에는 학생들의 운동회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별로 줄다리기, 릴레이, 축구시합 등을 하며 학생들의 부채춤 등 고전무용도 감상한다.

돌잔치, 결혼, 환갑 및 장례는 한 사람이 거쳐가는 중요한 통과의례이다. 전에는 잔치를 못하게 했고 사실상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하지 않았으나 근자에 들어와서 조금씩 국수, 전, 돼지고기 등으로 장만한 음식으로 잔치를 한다. 사람이 죽으면 대개 三日葬을 치른다. 마을 공동으로 긴 장대를 얹어서 만든 상여가 있고, 이 상여에 관을 엎고 종이로 만든 꽃으로 장식한다. 인근의 한국사람들이 모여서 상여를 메고 상두꾼의 지휘자가 소리내어 부르는 타령에 발을 맞춰서 묘지로 운구한다. 전에는 산의 아무 곳이나 묻었는데 지금은 마을 근방의 공동묘지에 묻는다. 묻을 때는 ‘어허 덜구여’ 하며 노래소리에 맞추어 발로 흙을 다지며 무덤은 한국식으로 둥그렇게 북돋운다. 중국사람은 화장을 원하지만 한국사람은 그대로 매장하도록 허가해 준다. 삼베와 같은 천은 없으며 服人們은 흰옷을 해입고 흰 두건을 쓴다. 葬地에는 어린 아이들은 가지 않는다. 未婚者가 그런 것에 접촉하면 나쁘다는 관념이 있는 탓이라고 한다.

4. 宗教와 信仰

公式的으로 認定된 宗教는 없다. 그러나 한인들은 계속하여 祖上崇拜儀禮를 행하여 왔다. 명절때 지내는 茶禮뿐만 아니라 忌日에는 祭祀를 지내고 한식때를 전후하여 조상의 묘소를 참배한다. 한때 黨幹部들이 미신을 타파해야 한다고 제사지내는 것을 금지시키려 했으나 한인들로부터 크게 반발을 받았다. 그래서 미신과 민족풍속은 별개의 것이라는 여론에 굴복하여 黨에서도 못본 체 한다고 한다. 제사라고 해서 크게 음식을 장만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 밥에 파전이나 고등어를 굽고 과일을 놓고 술을 올리는 것이 고작이다. 종이에 붓으로 神位는 써붙이지만 祭文은 읽지 않는다. 친척끼리 모여서 간단하게 음복을 한다. 간혹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람이 있으나, 다른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상놈이거나 불효자라고 욕을 먹는다.

祖上崇拜에 관한 祭禮는 물질적인 면에서 많이 단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실시되어 오고 있는 반면 다른 종교적인 활동은 극히 미약하거나 없어진 상태인 것 같다. 무당이 옛날에는 있었으나 中共當局으로부터 금지되었고 당 간부들이 미신타파운동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지금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K 할머니에 의하면 10여년 전에만 하더라도 당시에는 무당이 있었던 것 같다. 즉 살아 있었으면 올해 16살이 되었을 외손녀가 4살에 죽었는데 자꾸 아프기만 하고 낫지 않을 때 할머니는 무당을 부를 것을 주장했고, 손녀의 아버지는 미신이라 하여 거절했다는 것이다. 지금도 長達에는 옛날에 점도 칠 줄 알고 굿도 할 줄 알았던 80여세의 할머니가 있는데 지금은 아무 것도 안하고 손자집에서 손자 아이를 돌보며 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中國人們 가운데에는 아직도 산구라고 부르는(아마도 仙姑의 잘못된 발음인 듯함) 노파에게 찾아가서 점치다가 大隊의 幹部에게 들켜서 야단맞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한다. 사실 人民日報나 기타 中共의 新聞이나 잡지에는 종종 아직도 사람들이 풍수지리설을 믿거나 미신을 믿는다고 비난하는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종교나 신앙생활은 비록 표면화하지 않아도 상당히 생활이나 관념 속에 깊게 뿌리박고 있어서 완전히 없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 大同地域에는 전에도 기독교는 들어온 적은 없다. 최근에 撫順市에 少數의 사람들이 집에서 기독교 예배를 본다는 소문은 들었다고 한다. 교회 없이 개인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보아온 사례는 延邊

自治州나 北京, 上海 등지의 한국인 집단에서 발견되며 1979년 中共政府가 일단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게 되자 延吉市의 한국인 기독교인들은 教會建立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서울신문』, 1980. 3. 15).

VI. 文化變動과 民族正體性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中國이라는 社會 속에서 더우기 延邊自治州와 같이 韓人인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中國人 社會에서 소수의 인구집단으로 살고 있는 大同과 長達의 社會에서도 한국인들이 文化的 모든 영역에 걸쳐서 韓國固有의, 그리고 傳統的인 要素가 놀랄 정도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日常生活의 次元에서 본다면 물론 그들은 中國人們과 같은 社會와 經濟體制 속에서 그들과 같은 옷(작업복)을 입고 그들과 술을 마시고 친구를 삼으면서 지낸다. 大同에서는 T.V. 가 한인의 집에 한 대 있어서(중공돈으로 630元에 구입했다고 한다) 저녁이면 한인 중국인 할 것 없이 온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밤 10시 放映을 마칠 때까지 둘러 앉아서 시청을 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며 지낸다.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의상이나 음식이나 또는 주거생활 등 물질적인 면에서까지 한국 전통성은 끈질기게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성은 한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民族正體性에 대한 감각 또는 관념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한인들은 동료 중국인에 대해서 중국인은 계으로고, 어리석고, 더럽고, 무식하다는 관념을 갖는다. 동시에 그들은 마음이 유순하고 여유있다는 좋은 평가도 한다. 이러한 좋은 인식은 韓人과 中國人們이 平素의 생활에서 화합을 이루고 지내게 하는 요인이 되며 계으로고 더럽다는 식의 부정적인 인식은 중국인에 대한 민족 우월감을 강화하여 결혼이나 기타 제도적인 결합을 할 때에는 방해하는 작용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對中國人認識이 젊은 세대의 韩人, 특히 青年世代에도 동일한지는 확실치 않다. 한 예로서 결혼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자. 撫順市의 어느 한인 가정에서 처녀가 중국청년과 연애를 하였다. 이 사실은 青年世代에서는 老人世代와는 또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그런데, 이 처녀와 중국청년의 결혼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남자집안, 즉 中國人 가정에서는 한인 처녀를 맞아들이기를 원했으나, 여자측 식구들은 완강한 반대

를 했던 것이다. 조선사람은 조선사람끼리 결혼해야지 왜 되놈하고 하느냐' 하며 그 처녀의 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함으로써 그들의 결혼을 반대했던 것이다. 長達의 한 한인 청년은 潘陽의 공장에서 일을 할 때 사귀게 된 중국 처녀와 결혼하고자 했지만 역시 부모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서 결국은 포기를 하였다. 부모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 청년은 맏아들이므로 반드시 한인과 결혼해야 하며, 중국인 여자는 게으르고 더러우며 무엇보다도 한국 음식이나 풍습을 모른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동조를 얻었던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이유 배후에는 동시에 강력한 민족 의식(우월성에 바탕을 둔)과 국적이 바뀐다는 사실에 대한 염려가 깔려 있는 듯 하다. 실제로 중공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들은 현재 중공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 한인들의 관념으로는 중국인과 결혼하는 것은 자신이 중국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며 따라서 언젠가는 실시될지도 모를 고국에로의 귀환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염려를 하게 된다. 天津에서 귀국한 교포의 가족을 보면 다른 식구는 모두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중국인 남자와 결혼한 딸만은 계속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일단 결혼했으므로 이혼 까지 해 가면서 한국에 올 만큼 고국에 대한 애착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지만, 결혼에 관한 한 민족의식은 강하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념은 노인세대일수록 강하며 젊은 세대에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는 것 같다. 大同에서는 모두 K.B.S. 방송을 듣는다. 그들은 방송으로 부산에서 한 가족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며, 오늘 서울 용산시장에서 과 한단이 얼마며 쌀 한가마 값이 얼마인가를 그대로 듣는다. 또한 친척들로부터 육성으로 방송되는 편지도 듣고, 장소팔과 고춘자의 만담은 가장 즐겨듣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간혹 노인과 손자들 사이에는 한국어 방송을 들으려는 노인과, “되놈이나 미국놈 말소리”를 들으려는 손자들과 라디오 쟁탈전이 집안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남선’ 출신의 늙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따라서 현재의 거주지는 일시적으로 사는 곳으로 여기고 있다. 그들 중에는 죽은 부모나 친척의 뼈를 추려서 귀국길에 가지고 가기 위하여 특별히 보자기를 따로 장만해 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기술자, 교사, 군인 등이 되기로 희망하여 중공사회에 진출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북선’ 출신 사람들 가운데에는 한 두차례 북한의 친척을 방문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모두들

북한의 생활분위기가 너무나 딱딱하고 긴장되어 있으며 주택과 의류가 상대적으로 좋은 데 비하여 식량사정이 아주 나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서 귀국 희망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이들에게 만주지방은 이역이 아니라 한국의 延長으로 여겨지게 된다.

VII. 結 語

이상에서 간략하게 나마 中共의 韓國人 社會의 生活相과 文化形態를 살펴보았다. 본 조사는 延邊自治州라는 韓國人이 숫자적으로나 모든 社會生活面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 대신에 少數 民族으로서 中國人 社會 속에 존재하고 있는 撫順 근방의 조그마한 農村에 초점을 맞추었다. 실지답사나 현지조사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지역에서 살다가 귀국한 사람을 面談한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따라서 提報者の 숫자가 적으므로 이들이 말해주는 내용이 갖는 보편성과 타당성이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그들의 성격과 태도로 미루어 보건대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많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며, 최소한 中共속의 韓人 集團의 社會의 제 측면을 이해하는 하나의 단서로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社會的 制度와 物質的인 環境의 變化에도 불구하고 民族 固有의 文化를 유지해 오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中共政府의 對少數民族 政策, 韓人 社會 自體內의 文化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中共은 변방의 소수민족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관대한 태도를 위하여 각 民族 고유의 언어와 의상과 예술을 권장했으나 文化革命 以後 소위 漢文化의 보급에 힘쓴다고 한다. 즉 Schwarz(1973)에 의하면 변방의 소수 민족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漢族에 비하여 열세에 놓여 있고 따라서 中共政府에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서 국경문제 등으로 인하여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통치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적어도 티벳이나 기타 변방지역에는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소위 朝鮮族은 이들과는 다른 입장에 있다. 이들은 抗日鬪爭에서 중국의 항일세력과 공동전선을 했으며 역사적으로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문화적으로도 중국에 대등한 수준의 민족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쉽게 동화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남쪽으로 한국과 접경할 뿐 아니라 소련과 접하고 있으므

로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비록 중공의 군대가 주둔하여 국경수비를 한다고 해도 현지 주민인 한인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의 유연성 또는 관대성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한인집단의 정치적인 입장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韓人集團이 다른 소수민족과 달리 특별 대우를 받게 된 이유는 또한 무엇보다도 그들의 경제적인 지위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이들은 과수재배와, 특히 벼재배를 담당한다. 만주 등 중국 북부에는 벼재배가 쉽지 않으며 쌀이 귀하지만, 韩人 농부들은 이 논농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한인 집단이 소속된 大隊들은 농사에 관한 한 월등히 수익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韓中 사람들간의 友好관계, 벼농사의 성공으로 인한 한인들의 경제적 지위 확보, 中共 당국의 관대한 소수민족정책, 문화적 우월감을 바탕으로 한 민족의식 등등이 이들 한인으로 하여금 전통문화를 존속시켜 오게 한 요인들이 될 것이다. 특히 한인들은 자기들끼리만 생산소대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적·문화적으로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단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들이 대부분 벼농사에 종사한다는 사실 역시 흥미있는 일이다. 灌溉의 관할이나 벼재배는 많은 사람들의 조직된 협력체계를 요구한다. 따라서 벼농사를 통하여 그들은 협동관계를 강화하며 이는 또한 민족의식의 강화를 촉진시킨다고 하겠다.

이러한 경제적인 지위와 여건을 바탕으로 하여 이들 少數의 韩人은 거대한 중국집단 속에서 오히려 더욱 民族正體性(ethnic identity)를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朝鮮族이라는 民族集團의 範疇 속에 머물러 있어도 사회적 진출이나 사회생활의 영역이 제약을 받고 있지 않을 때 가능한 것이다. 앞으로 보다 광범하고 세밀한 조사와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보다 정확한 한인 사회가 이해되고 그들의 문화변동이 파악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민족의 정체성(identity)의 변화관계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參考資料 및 文獻>

- 車永煥, 1966. '中共속의 韓國人' 『新東亞』, 5月號.
- 韓泰京, 1979. '北間島의 韓國人' 『中央日報』, 2월 연재.
- 玄圭煥, 1967. 『韓國流移民史』, 서울, 語文閣.
- 朝日新聞社, 1960. 『朝日年鑑』, 東京.

- 鶴嶋雪嶺, 1976. “中國延邊地區の 朝鮮人,”『季刊 三千里』, 통권 8호, 東京.
- 鶴嶋雪嶺, 1978. “中共治下의 間島를 가다,”『東亞日報』, 1월 1일(이것은 鶴嶋氏의 위의 1976년도 기행보고서를 발췌·번역한 것임).
- 安藤彦太郎, 1963. “延邊紀行,”『東洋文化』36號, 東京, 東洋文化研究所.
- 國家民委民族問題五種叢書編輯委員會, 1981. 『中國少數民族』, 北京, 人民出版社.
- Pelzel, J. 1972. “Economic Management of a Production Brigade in Post-Leap-China,” in W.E. Willmott, ed., *Economic Organization in Chinese Socie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Robinson, J., 1964. *Notes from China*,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Schwarz, H., 1973. “The Treatment of Minorities,” in M. Oksenberg, ed., *China's Developmental Experience*, New York, The Academy of Political Sciene, Columbia University.

附錄 「朝鮮族」

國家民委民族問題五種叢書編輯委員會編『中國少數民族』

1981. 北京 人民出版社.

번역 : 金光億*

I

朝鮮族은 우리나라(中共)의 부지런하고 용감한 民族으로서 유구한 역사와 영광스런 혁명의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반제국주의와 반봉건제도의 현대 투쟁사에서 친란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기고 있다. 朝鮮族은 자기들 원래의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있는 바 朝鮮語가 우랄·알타이어 계통에 속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확실한 정설은 아니다. 일찌기 15세기에 문자를 창조해 냈으나 현재 40개의 자음과 모음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소리글자이다. 자음과 모음을 한데 어울려 써서 한 음절의 소리를 만들고 이러한 소리를 모아 낱말을 만들며 하나의 글자는 네모형이 된다. 이전에는 한글에 漢字를 채용했었는데 현재 모두 한글을 아울러 사용하고 있다.

1978년 현재 우리나라의 조선족은 약 168만명으로서 주요 분포상황을 보면 吉林省에 약 104만명, 黑龍江省에 약 43만명, 遼寧省에 약 17만명, 그리고 기타는 중국 본토의 여러 도시에 흩어져 살고 있다.

조선족이 가장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은 吉林省의 延邊 朝鮮族自治州로서 약 71만 4천여명이 거주하는 바, 이는 중공거주 조선인의 43퍼센트에 해당한다. 自治州는 吉林省의 東南部에 위치하고 있으며 延吉市와 圖門市의 두개의 市와 延吉, 和龍, 安圖, 虲春, 汪清, 敦化 등 6개의 縣으로 나뉘어져 있고 면적은 4만 천 5백 km²를 점한다.

이 지역은 경치가 아름답고 기후도 사람 살기에 적합한 좋은 곳으로 長白山의 구릉지대에 속한다. 여의 무리의 산들이 우뚝우뚝 솟아있고 좁고 깊은 계곡들이 전 지역을 가로지른다. 우리나라 東北地區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長白山脈의 主峰인 白頭山은 해발 2천 7백 4십 4m이다. 산 꼭대기에는 天池라는 하나의 커다랗고 둑근 투명한

* 본 자료를 번역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 주의를 요하는 점이 있었다. 우선 한국인을 朝鮮族이라고 表記하며, 이들 한국인들의 거주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예술·문화·분야에 대한 서술 및 결론 부분이 중국 공산당과 사회주의의 찬양 선전으로 일색되어 있다는 점이 불만스럽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선전용으로 이용한 것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 무엇보다 상당한 왜곡을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나 산업부문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특히 소득증대로 표현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서술되고 있지만, 이것은 중공내의 다른 소수민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낫다는 점이며, 또한 그것이 중공거주 한국인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 몇몇 소위 시범 사례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숫자의 과시는 생계유지의 수준을 겨우 넘어섰다는 사실의 美化일 뿐 여전히 물질적인 생활의 모든 면에서 낙후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본문 가운데 '우리나라' 혹은 '조국'은 중공을 가리키는 것이며 몇개의 인명, 지명 그리고 공산당 찬양의 문귀가 나오는 바 번역의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그대로 신기로 하였다.

碧玉 같은 유명한 연못이 있다. 天池의 북쪽에는 하나의 트인 곳이 있어 공중으로부터 瀑布가 되어 아래로 떨어져 푸르고 커다란 물줄기가 출렁거리며 奔流를 이루어 鴨綠江, 圖們江* 및 松花江의 균원을 형성한다. 또한 굳건한 기세로 끊임없이 휘돌아 흘러나가는 海蔘江, 布爾哈通河, 嘎呀河, 豊春河, 古洞河 등의 물감을 먹인 듯 푸른 물결이 이리저리 구불거리며 흘러 비옥한 토지를 풍부하고 윤택하게 적셔 준다.

이 지역내는 비록 산맥들이 가로지르고 하천들이 수없이 널려 있어도, 鐵道와 國道들이 사방 팔방으로 뻗어 있어 교통은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다. 豊春縣을 제외하고는 각 縣마다 모두 기차가 통과한다. 또한自治州 전역에 國道가 19개, 山林道路 및地方道路가 51개가 건설되어 있고 각 人民公社마다 자동차로 통할 수 있게 되었다. 山林地區에는 森林鐵道 4개가 1,100km 길이로 뻗어 있다. 과거에는 장백산은 걸어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험준한 산길이었으나 이제는 자동차로 산 밑에서 산꼭대기까지 곧장 갈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산꼭대기에는 스키장까지 만들어져 있다. 이외에 또 하나의 집단거주지역이 있으니 그것은 長白 朝鮮族自治縣으로서 吉林省 東南部의 長白山으로 둘러싸여 있다.

朝鮮族이分布되어 있는 땅은 비단 山川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품질좋고 많은 產物이 나오며 資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곳이다. 끝없이 넓은 原始林이 혹은 높고 혹은 낮게 침침히 펼쳐있는 산들을 뒤덮고 있어 「長白林海」라고 일컬으며 우리나라의 중요한 林業基地의 하나를 이룬다. 延邊地區의 林業面積은 총 4천 6백 여만畝로서 森林을 덮는率은 70퍼센트에 해당하고 林木蓄積量은 총 三억여 m^3 이며 延邊地區의 木材生產量은 年 6·7백만 m^3 를 차지한다. 長白自治縣 한 곳에서만도 매년 國家**에 6만 여 m^3 의 크고 품질 우수한 紅松*** 木材를 제공할 정도이다. 이 외에自治州가 생산하는 많은 양의 紅松, 白松, 그리고 開葉樹의 木材들은 中國各地로 보내져서 祖國의 社會社業建設事業을 크게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 끝없이 펼쳐진 숲의 바다(林海)에서는 각종 藥材와 特產品들이 풍성하게 나오는 바 가장 유명한 것을 몇 가지 꼽으면 “人蔘, 豹皮, 鹿茸角”의 세가지 寶物 및 섬유, 油料, 芳香, 染料 등 植物資源과 密林의 깊은 곳에 서식하는 東北虎(동북아시아 호랑이), 梅花鹿**** 및 灰鼠***** 등의 動物이 있다. 地下資源 역시 豊富하여 銅, 鉛, 鋅 및 金礦이 있어 清나라 시대때부터 이미 채취하기 시작하였다. 기타 鐵, 錫, 磷, 石墨, 石英, 石灰石, 油母頁岩 등 矿石들이 매장되어 있으니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극히 귀중한 自然財富인 것이다.

朝鮮族의 거주지구는 우리나라 北方의 유명한 水稻作地方(水稻之鄉)이며 아울러 우리나라 주요 연초생산지의 하나이다. 이 지방에서 생산되는 담배는 잎이 크고 색깔이 좋으며 매년 총생산량이 약 30만톤에 이른다. 그 외에 가을이면 도처에 아름다운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풍경을 볼 수 있는 延邊地方에는 現在 약 1만 7천畝의 과

* 豆滿江을 말함.

** 國家에 提供한다는 것은 어떠한 形式을 통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人民公社를 통한 定量의 세금조로 국가가 거두어 들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 紅松은 赤松인듯.

**** 梅花鹿: 흰점무늬 노루.

***** 灰鼠: 날개가 달린 밀림에서 서식하는 다람쥐; 날다람쥐라고 함.

수원이 있고, 그 유명한 ‘苹果梨’*는 열매가 크고, 씨앗은 적되 과일은 살이 두텁고, 크고, 부드럽고, 향기 그윽하고, 과즙이 풍부한 것으로서 생산량 많고 寒冷한 기후에 잘 견디며 더우기 長期間 儲藏을 할 수 있는 등의 特性이 있어 1955년 이래로 外國으로 수출하여 名盛을 누리고 있다. 이 외에도 산포도, 대추, 高麗果(?) 등 야생과일들 또한 독특한 風味를 가지고 있다.

II

朝鮮族은 原來 우리나라 이웃에 접한 朝鮮國으로부터 移住해 온 사람들이다. 世紀末부터 이러한 移住가 조금씩 이루어졌으며, 17世紀 中葉 以後에 이르러 당시 조선 봉건통치계급의 잔혹한 수탈과 압박으로 인하여, 특히 1869년 조선 북부지방이 大飢荒을 만나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대대적으로 들어와서 延邊 등지에 거주하게 되었다. 1901년부터 日本帝國主義が 朝鮮을 侵入하기 시작한 후 日本侵略軍의 殘暴한統治와 壓迫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또다시 대대적으로 우리나라 東北地方으로 移住해 오게 되었다.

그들이 처음 이 땅에 이주해 왔을 때에는 生活이 곤궁하기 짹이 없었으나 中國人이나 滿州族 등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또한 스스로 고되고 피눈물나는 노동을 계울리하지 않으며 가시를 덮고 가시를 꺾으며 산을 깎고 흙을 쌓아가며 땅을 개간하고 황무지를 개척해 가는 가운데 점차 하나의 국가(와 같은 커다란 집단)을 건설하여 이제는 우리나라의 형제의 하나가 된 것이다.

朝鮮族은 特別히 寒冷한 北方地域에 처음으로 水稻作을 成功의으로 開發함으로써 農業史上 創造성이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참신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원래 圖們江과 鴨綠江 流域은 대부분이 산악과 구릉지대로서 기후는 寒冷하며 년간 日朝日이 짧으면 110일, 가장 길 경우 160일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모든 지역이 잡초가 만연해 있어 나무조차 그 뿌리를 깊게 밭하는 草原 및 沼澤地帶로서 전반적으로 水稻栽培에 적당하지 못하다. 그러나 朝鮮人們은 自然과 더불어 爭鬪하는 精神과 智慧를 갖추어 벼재배의 곤란을 극복하게 된 것이다. 開發初期에 그들은 산열매와 들판의 야채를 먹고, 비바람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초가집에서 기거하며, 손으로 직접 만든 나루팽이와 호미를 쓰고, 가축이 없으니 모든 농사도 사람의 힘으로만 할 수 밖에 없었으니 개간한 하나하나의 토지에는 그들의 갖은 고초와 피와 땀이 배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운 기후와 惡劣한 자연조건의 속박 뿐만 아니라, 또한 봉건지주계급의 방해와 착취와도 투쟁을 할 수 밖에 없었으나, 이러한 모든 곤란과 분투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들은 마침내 東北部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다.

水稻가 가장 일찍 그 시험재배에 성공한 곳은 通化縣의 大甸子 등지이다. 그 후 점차 확대되어서 臨江, 怀安, 輿京, 柳河, 海龍 등지로 재배가 되어 1877년에는 드디어 延邊에서도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1906년 이들 朝鮮人們은 和龍縣 勇智鄉 大教洞에 1308m에 달하는 도량을 파서 만들어 33頃**의 논에 灌溉를 함으로써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높은 生產을 이룩하였다. 이로부터 延邊地區의 논의 면적은 매년 증가하여 결국 東北

* 苹果梨：사과 모양의 배

** 頃(면적 단위)

地方의 가장 뛰어난 쌀생산지역이 되었다. 이 곳에서 산출되는 쌀은 날알이 크고 눈같이 희며 기름기가 많고 영양가가 풍부하여 北京이나 天津 등지에서는 이곳 출산 쌀의 명성이 자자하다.

朝鮮人們의 生活은 실로 다채다양하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이들의 거주지역에는 名節이 을 때면 곳곳에서 그를 전통의 악기인 가야금이나 통소의 아름다운 가락을 들을 수 있어서 사람들을 새로운 분위기 속으로 젖어들게 한다. 長白山 기슭 아래 소녀들은 위에는 자그마하고 아랫다운 짧은 옷(저고리)을 입고 밑에는 곱게 물들인 긴 치마를 입고 소매 끝에는 바지를 달고, 머리에는 옹기를 이고 혹은 계곡에서 혹은 우물에서 물을 담아 집으로 가져간다. 婦女子들은 특히 널뛰기와 그네타기를 좋아한다. 널판을 힘주어 뛰어내릴 때마다 사람은 번갈아 교묘하게 공중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여 가끔씩 보는 사람들로부터는 웃음소리와 탄성이 나오게 된다. 소녀들이 그네를 탈 때는 긴 치마는 공중높이 휘날아 춤추며 어떤 때는 마치 한마리 흰 학이 나래를 펴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흰 학이 땅으로 곤두박질치며 내려오는 것 같기도 하며, 또 어떤 때는 찬란한 바람이 구름과 하늘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여 그 무한한 즐거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루의 피로를 다 잊어버리게 준다.

씨름은 朝鮮族의 傳統의 오락의 하나이다. 男子들은 特히 技巧와 힘을 겨루기를 좋아하며 시합이 계속될수록 더욱 힘주며 악착같이 겨루는 것이 마치 사자와 맹호가 한데 어울린 것 같고 모여선 사람들도 덩달아서 온 몸을 비틀며 홍분한다. 이긴 사람은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손을 잡고 씨름판을 나가면 또 새로 시합할 사람들이 등장한다. 足球(축구) 역시 朝鮮族 男子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즐기는 운동으로서 人民公社에서부터 각 生產隊隊에 이르기까지 모두 각각의 축구팀을 가지고 있을 정도이다. 일반 국민학교 4학년 이상의 학년에서도 학급마다 축구팀을 조직하기도 한다. 名節이나 休暇日을 맞이하면 의례이 축구를 중심으로 한 각종 운동시합을 개최하는데 사람들은 시합구경을 하기 위해 늙은 어른을 부축하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폐를 지어 수십리 길을 걸어 응원하러 가느라고 아주 북적댄다.

풍부하고 다채로운 그들의 歌舞藝術은 비단 청년 남녀들만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도 언제나 노래하고 춤추며 즐기는 것을 볼 수 있다. 名節을 맞아 여러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만 하면 그들은 노래와 춤을 시작한다. 밭에서나 공장에서나 어디서든지 휴식시간이 되면 누군가 한 사람이 노래를 시작하거나 장구를 치기 시작하면 나머지 모두 가락을 맞춰 소리높이 노래부르며 여기저기 일어나서 춤들을 추는 것이다. 때로 집안에 경사가 있으면 역시 노래소리 드높이고 춤을 즐기며, 흥취가 무르익어 ‘家庭 노래와 춤 차량대회’가 되면 70여세의 할머니 5·6세의 아동들에 이르기까지 신명나게 춤추고 노래하며 다투어 무대위로 올라온다.

朝鮮族은 일반적으로 흰색 옷을 좋아하여 깨끗하고 소박한 것을 좋아하는 민족성을 나타낸다. 부녀자들은 짧은 上衣와 긴 치마를 입는데 그들의 말로 ‘저고리’와 ‘치마’라고 일컫는다. ‘저고리’는 앞이 약간 비스듬하게 트여졌고 긴 옷고름으로 매는 짧은 상의이며 ‘치마’는 허리께에 수 많은 주름을 가진 치마이다. 긴 치마와 짧은 치마의 구분이 있어 긴 것은 발목까지 오는 것이고 짧은 것은 무릎 정도를 넘는 것이다. 또한 통치마(筒裙)와 주름치마(纏裙)의 두 종류가 있다. 부녀자들은 배(船) 모양의 고무로 만

든 신을 신기를 좋아한다. 남자는 짧은 상의 위에 조끼를 입으며 바지는 다리통이 크며 외출할 때에는 비스듬히 목깃을 하고 긴 옷고름을 매는 긴 두루마기를 걸쳐 입는다.

그들이 즐겨 먹는 음식중에 '김치'라고 부르는 일종의 泡菜(채소 요리)가 있는데 이는 흰 배추와 무우를 원료로 하고 여기에 마늘, 고추, 생강 등을 다져서 넣어 만든 것이다. 특별한 풍미를 가진 것으로는 떡, 옛, 냉면 및 된장을 들 수 있다. 또한 그들이 특히 즐겨 먹는 것으로 개고기가 있다.

朝鮮族의 村落은 대부분 산기슭 아래의 平地에 위치하며 村落間의 거리는 2~3里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村落은 많으면 수십호, 적은 경우는 10여호로 이루어져 있다. 마을에서 가옥은 東南向, 南向, 그리고 西南向으로 짓는다. 각 가옥에는 따로 마당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대체로 기와침과 초가집의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가옥은 똑같은 양식으로 지어지는 바 지붕은 전후 좌우 4면이 모두 비스듬하게 덮히는데 이에는 기와조각이나 벗짚이 사용된다. 가옥의 정면마다 세쪽 혹은 네쪽의 문이 달려 있는데 이것은 문(門)인 동시에 窓의 역할을 한다. 가옥 내부는 대체로 침실, 객실, 부엌 및 창고 등으로 나누어지며 방안은 흙벽돌로 벽을 하고 편편한 돌을 깔아서 평평한 구들을 만들고, 집안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고, 온돌 바닥에 앉는다.

가정의 구성원은 작으면 서너명, 큰 경우에는 십여명의 식구로 이루어진다.* 남자는 집안의 중요한 근로자로서 농사일을 담당하여 가정경제의支柱가 된다. 부녀자는 집안의 일에 종사한다. 맏아들은 父母를 봉양하는 의무를 지니며 부모가 돌아가시면 큰 형이 동생, 자매들을 부양할 책임을 진다. 둘째 아들부터는 결혼후 분가하여 따로 살게 된다. 부모의 遺產에 대하여서는 長子가 繼承權을 갖지만 次子 역시 部分的인 權利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딸은 재산을 나누어 가질 권리가 없다. 부인은 남편에 대하여 반드시 복종해야 하며 남편이 죽으면 아이들과 더불어 집안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 남녀간의 지위는 불평등하며 과거에는 '여자는 남자의 손가락 하나보다도 못하다'라는 속언이 있었을 정도였다. 解放**후 이러한 남녀관계는 아주 크게 변하였다.

朝鮮族은 一夫一妻制의 結婚制度를 시행한다. 解放前에는 結婚이란 것은 전부 父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早婚이 비교적普遍화되었었고 텠릴사위나 童養媳***를 취하는 예도 또한 있었다. 텠릴사위는 대부분 女子집의 부모가 아들을 갖지 않거나 있어서 아주 어리기 때문에 텠릴사위를 들여서 집안일을 관리하고 노인을 부양하게 하기 위한 것이 많다. 민며느리는 대부분 가난한 집의 여아를 어릴 때 데리고 와서 길러서 크면 자기집 아들과 결혼시키는 것이다. 農村에서는 일단 出嫁한 여자는 異婚 할 수 없으며 寡婦 역시 再嫁를 할 수 없었다. 改嫁는 곧 貞節이 없는 것이라 하여 否定적인 취급을 받았으니 이것은 封建制度의 婚姻形態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다.

朝鮮族의 名節은 설, 清明, 中秋 외에도 家庭마다의 節日이 있다. 즉 어린아이의 둑날이 되면 손님들을 칭하여 아기의 첫 생일을 즐겁게 보내며, 60번째의 생일인 「回甲」, 결혼한 지 60년째 맞는 「回婚」 등의 날에는 자손, 친척, 친구, 이웃이 모두 모여 축복과 축수를 하며 한바탕 크게 잔치를 하게 된다.

* 현재 人口政策의 영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십여명은 확대가족이기 쉬운데 그렇다면 이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 해방은 1949년 중국 대륙이 공산화된 것을 말한다.

*** 童養媳: 민며느리.

解放前에는 朝鮮族 地區에는 두 개의 宗教가 있었으니, 즉 基督敎와 儒敎였다. 기독교 교회에는 牧師, 長老, 執事 등이 있고 農村 人口의 약 5분지 1이 이 기독교를 믿어서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에는 예배를 드리곤 했다. 그 외 적은 수의 인구가 유교를 믿었으니 이는 孔子와 孟子를 신봉하는 것으로 대부분老人들이었다. 解放後 이들 종교는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게 되었다.*

과거에 노인이 죽으면 친족들은 3일간 세수나 이발을 하지 않고 또한 干飯을 먹지 않았다. 그리고 반드시 삼베옷을 입었다. 친지와 친구들이 와서 조문을 할 때는 먼저 시신 앞에서 두번 머리숙여 절하고 다음에 유가족과 마주하여 서로 두번 절한다. 埋葬은 반드시 하루안에 다해야 한다. 염습과 입관시에는 새옷을 입히고 원래의 의복은 태워 없앤다. 보통 죽은 자 사흘 후에 매장을 한다. 매장 전에는 풍수보는 사람을 청해서 묘지를 선정하는데 묘지는 대부분 산동성이의 편편한 곳에 잡으며 머리를 산으로 하고 발은 산 아래로 향하게 하여 묻는다. 그런 후 제물을 묘앞에 진설하고 고개숙여 절한다. 이후에는 삼일간 계속하여 제사를 지내는데 식사하기 전에 젯상에 먼저 올린다. 첫번째 날의 젯상에 음식 올리는 것을 '初云'이라 하며 둘째 날에는 '拜云'이라 하고 세째 날은 제물을 가지고 묘에 가서 제사 지내는데 이를 '三云'이라고 한다. 그 후에는 매년 죽은 사람의 生日, 忌日, 그리고 清明이나 端午, 中秋節 등의 날에 반드시 제사를 지내게 된다.

III

지난 반세기 아래 조선족 인민들은 日本帝國主義와 國民黨政府 및 美帝國主義에 대항하는 투쟁 중 조국보존에 선혈을 뿐려 역사에 영웅적 서사시를 남겼다.

1930년대부터 조국의 東北大地가 日本 帝國主義의 侵略統治를 받게 되자, 조선인민 역시 고통과 비참의 생활을 겪게 되었다. 이 고난이 엄중한 시대에 日本 侵略者는 미친듯이 警察과 特務隊를 통한 統治를 자행하였고 憲兵警察과 自衛團이라는 명목의 '特設部隊' 등 反動武裝을 이용하여 민중의 革命力量을 진압하고 무자비한 '三光政策'을 실시하며 제 마음대로 인민을 도살하였다. 이들 日本 侵略者들은 수많은 朝鮮人 村落을 불태워 없애고 주민들을 집단적으로 학살을 했으니, 그 예로 1932년 琿春縣 烟筒粒子에서 일차로 이십여개의 촌락을 불태우고 1,600여호의 가옥을 파괴시켰고, 三漢里와 荒沟에서는 1,000여명의 무고한 부녀자와 아이들이 전부 살해되었다. 1933년부터 1935년에 이르기까지 당시 30만 인구가 죄 되지 못했던 延吉縣에서 만도 日本 侵略者들의 칼 아래 죽은 사람이 2만명 이상이나 되었다. 延邊地方에 나돌았던 비분에 찬 노래에는 "冬天死了踩成蹠, 夏天死了教狗扯, 萬人坑里埋滿人, 荒山野地死骨多"라는 귀절이 있어 日本 侵略者의 잔인포악한 통치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다.

日本 侵略者들은 또한 抗日遊擊隊와 일반사람들과의 협력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하여 「集團部落」(集中營)政策을 강제로 실시하여 조선인들은 토지와 가옥을 잃게 되고 부모 처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집안이 망하고 사람은 죽으니 가히 민족멸망의 경지에 빠

* 숫자상으로나, 公式的으로나 상당히 쇠퇴했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 종교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비공식 보고는 있다.

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잔학과 포악이 심해질수록 조선인의 반항투쟁 역시 더욱 치열해졌다. 1928년 中國共產黨 延邊地區委員會(1930년 8월 東滿特委로 개칭)가 성립되었고, 조선족은 여러 민족과 함께 이 中國共產黨의 영도 아래* 긴밀히 단결하여 적극적인 항일 투쟁을 개시하였다. 1930년 봄부터 1932년 봄에 이르기까지 延邊地區에서는 전후 여러 차례 소위 ‘五·三十’ 폭동, ‘8·1吉敦’ 폭동 및 秋收, 春荒투쟁 등이 작렬하여 日本帝國主義과 封建勢力에 막심한 타격을 가하였다. 동시에 여러 抗日游擊隊와 群衆 革命團體들이 성립되었으니, 反日會, 反帝同盟, 農民協會 등이며 이들은 각종 항일투쟁을 적극적으로 개시하여 일본군대에 끊임없이 중대한 타격을 주었던 것이다. 이후에 생긴 東北抗日聯合軍의 11個 軍隊 가운데 朝鮮人 戰士가 없는 군대는 없었으며 심지어 어떤 부대는 반수 이상이 전부 조선인인 것도 있었다. 그들은 白山黑水 어디든지 전투를 하였으며 日本侵略者들을 혼비백산하게 하였다. 風餐露宿의 힘든 세월 속에서 조선인 병사들은 타인의 추종을 불허하는 영웅적인 투쟁정신으로 高山險阻을 두려워 않고 비바람 찬 눈보라를 피하지 않고 죽기로 싸우고 용감한 작전을 감행하여 中國革命史上 찬란한 한 章을 장식하였다.

1938년 가을, 抗日聯合軍의 8명의 朝鮮 및 漢族** 처녀들이 적군의 추격을 받고 분전을 계속 하다가 마지막 총탄이 다해지자 일제히 牡丹江에 투신, 장엄한 희생을 하여 붉은 피로써 ‘八女投江’의 비장한 詩를 남겼다. 1939년 6월, 抗日聯合軍은 朝鮮人과 漢人 광부들의 도움을 얻어 天寶山 銅礦을 습격하여 그 설비 일체를 완전히 파괴하여 日本侵略者の 軍事工業基地를 함락함으로써 전국의 항일전쟁에 커다란 도움을 주게 되었다.

朝鮮族도 다른 各族들과 마찬가지로 食糧과 衣服 및 其他 物質로 抗日聯合軍을 지원했음은 물론 스스로 조직을 갖추어 요소요소를 경계하고, 통신임무를 담당하며 偵察을 수행하였다. 1933년 4월 汪清縣의 朝鮮人 婦女 6명은 行商人으로 분장을 하고 圖寧路의 工業地區의 적군 경찰수비대를 偵察하던 중 그들이 휴식을 취하는 틈을 타서 무기를 탈취한 후 적 수비대 전원을 포로로 하고 총 34자루를 압수하였다. 또한 和龍縣의 12살난 兒童團團員은 통신공작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여러 차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나 불행히도 적군에게 체포되었다. 적군이 그의 손에서 유격대의 비밀 암호표를 빼앗으려 하자 그는 상대방의 손가락을 물어뜯은 후 암호표를 삼켜버렸고 최후로 장렬한 희생을 당하였다.

이러한 抗日鬪爭을 하는 동안 各民族은 서로 의지하고 보호하며 수 많은 영웅적 업적을 남겼다. 1939년 抗日聯合軍의 朝鮮人 전투원 열명이 臨江의 어느 密林에 숨어서 病을 치료하고 있던 중 어떤 60여세의 漢族老人이 항상 식량을 구해다 주곤 했다. 어느 날 이 노인이 전투원을 주기 위하여 국수를 만들고 있을 때 적군에게 발각이 되어 잔혹한 형벌과 고문을 받게 되었으나 시종 굳은 절개를 지켜 굴하지 않고 抗日軍에 대하여 한마디 발설하지 않고 마침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조선인 전투대원을 살렸던 것이다. 또한 中國共產黨 東滿特委의 童長榮 書記는 重病을 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중국 대륙에서의 한국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抗日鬪爭을 중공당국은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 속에서 실현된 것으로 취급하려는 것 같다.

** 中國에서는 자기들을 漢族으로 구분한다.

직접 전투를 지휘하였으며 적군에게 빌자되었을 때는 그는 病이 重하여 걸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그를 옆에서 돋고 있던 朝鮮人 여자 崔今淑은 혼자서 먼저 가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童長榮을 등에 업고 한편으로 충격전을 벌리면서 계속 피신해 나갔으나 결국 탄알도 다 떨어지고 기진맥진하여 두 사람 함께 장렬한 전사로써 義를 이루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抗日戰爭 중 전후 수십만의 조선족 인민이 고난의 전투에 참가하였고 수많은 조선족 열사들이 민족해방 투쟁을 위하여 유혈희생을 하여 드디어 1945년 8월에 해방을 획득하게 되었다.

抗日戰爭이 끝나자 이번에는 國民黨이 美帝國主義를 뒷받침으로 하여 勝利의 열매를 탈취하고 人民을 또 다시 세로운 노예로 만들려는 허망된 기도를 하여 人民에 거역하는 內戰이 일어났고, 朝鮮族 人民은 共產黨의 영도 아래 全中國을 解放하기 위하여 全國的인 解放戰爭에 역시 적극적으로 참가하였으니 抗日戰鬪의 老人們은 자기의 아이들을 보내냈고 妻子들은 남편들을 전장에 보냈으며 형제들이 다투어 군대에 들어오고 청년 부녀들이 쌍쌍이 입대하겠다고 이름을 올리는 등 감동어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리하여 전후 약 5만명의 朝鮮族 青年들이 人民解放軍에 참가하였다. 그들은 中國全城을 解放하기 위해 용감히 善戰을 하고 완강히 적군을 죽여 공훈을 쌓아 올렸다. 이 외에도 延邊地區에서는 22만 2천 3백여명의 청장년과 1만 9천 2백여대의 大車*를 동원하여 擔架隊**와 運輸隊를 조직하여 前線을 지원하였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모든 힘을 바쳤다. 그리고 약 3천 4백여명이 전공을 세운 뒤 많은 사람이 共產黨에 가입하였다.

美國에 對抗하고 北朝鮮을 돋는 전쟁*** 중에는 많은 朝鮮族 青年들이 中國人民志願軍에 참가하였으니 延邊에서만도 4천 6백여명이 나왔다. 동시에 3천 6백여명이 軍隊를 따라 政治, 翻譯, 運輸 등의 工作人員으로 종사하였다. 또한 延邊醫院은 1951년에 전문적으로 이 전쟁에 종사할 1,000명의 간호원을 배양해 냈다.

半世紀 아래 朝鮮族 사람들의 英雄男女들은 中國共產黨의 영도아래 抗日戰爭 뿐만 아니라 解放戰爭, 그리고 抗美援朝鮮 중 피를 아끼지 않고 희생하여 수많은 찬란과 감동의 눈물어린 일들을 이룩하였다. 기나긴 革命鬪爭 동안 朝鮮族 사람들은 자기의 운명과 조국의 운명을 한데 연결시켰으며 각 형제 민족들과 단결하여 不可分의 협육관계를 이룩하였다.

IV

이제 붉은 깃발이 長白山 위의 검은 구름을 훌쫓아 버렸고 목에었던 海蔘江도 출렁이며 노래부르게 되었으니 1945년 抗日戰爭의 승리로 朝鮮族地區는 解放을 얻게 된 것이다. 이 때부터 그들은 共產黨의 領導下에 人民民主政權을 세우고 社會主義革命과 建設을 진행하였으니 政治, 總濟 및 文化 등 각 방면에 걸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 대형 우마차

** 짐을 몸으로 저 나르는 부대

*** 6.25동란

朝鮮族人民들은 1952년 9월 3일 吉林省延邊朝鮮族自治州를 成立하였고 1958년 9월 5일에는 吉林省長白朝鮮族自治縣을 성립하였다. 그리하여 여기저히 흩어져 살고 있던 이들은 이를 전후하여 모두 42개의 民族鄉*을 세우게 되었다.

各級 黨組織은 하나같이 民族幹部를 培養하는 작업에 큰 힘을 기울였다. ** 일찌기 抗日戰爭 및 解放戰爭의 時期에 많은 조선족의 뛰어난 남녀들이 투쟁을 통하여, 확고한 수준의 사상과 공작능력을 고루 갖춘 혁명전사로 단련되고 성장하였다. 解放後 많은 사람들이 이미 各級 黨政機關의 지도적 간부로서 성장하게 되었다. 이들의 政治運動과 各級 學校에 까지 이르는 計劃的인 教育과 訓練을 통하여 朝鮮族 幹部를 대량으로 길러내게 되었다. 現在 延邊朝鮮族自治州에는 州級擔當指導幹부가 69퍼센트, 縣級擔當指導幹부가 54퍼센트, 人民公社級擔當指導幹부가 58퍼센트를 차지하며 全自治州의 朝鮮人幹부의 숫자는 總幹부의 64퍼센트를 차지한다. 民族區域의 自治를 實現하고, 幹부의 民族化를 한 것은 朝鮮人民의 愛國主義精神과 社會主義를 建設하는 積極性과 創造性을 더욱 크게 불러 일으키도록 한 것이다.

일찌기 1946년 3월에 黨은 당시에 이미 解放이 된 延邊地區와 黑龍江地區 가운데 日本侵略者들에 의하여 점유되었던 土地를 分配하여 그곳의 土地를 갖지 못하거나 조금밖에 갖지 못했던 朝鮮族 및 各族들의 農民에게 주었다. 1946년 7월에 시작하여 反奸清算鬪爭과 土地改革運動이 격렬히 일어나 農村地主階級의 수탈을 철저히 분쇄하였고 封建的 土地所有制를 철폐하여 나아가서 많은 朝鮮族 農民은 가혹한 封建制度의 질곡으로부터 解放을 얻게 되었고 土地, 가축, 農具, 가옥 및 食糧을 나누어 가지게 되었다.

土地改革後 朝鮮族 農民은 小農經濟의 貧困落後의 입장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1948년 延邊地區에서는 50 대지 60퍼센트의 農家戶數가 互助組에 참가하였고, 1953년에는 약 80퍼센트 이상의 農民이 참가하여 初級農業生產合作社를 결성하였다. 1956년 여름에는 全國 農業合作化가 대대적으로 추진되었고 이 때 이 곳에서도 이에 가입한 農家는 98.2퍼센트나 되어 全國에서 가장 일찍 農業合作化를 이룬 民族自治地方의 하나가 되었다. 그후 1958년에 이들은 다시 人民公社를 성립하였다.

黨과 政府는 朝鮮居住地區의 農業에 대하여 각 方면의 도움과 지원을 했고 또한 第一次 五個年計劃期間에는 延邊地區에 水利建設을 위한 資金으로 4백 2십 4만元과 農業貸款으로 1천 배 8십만 9천여元을 投入하였다. 동시에 農業試驗所, 技術推進所, 경운기 수리공장 및 氣象觀測所 등을 설치하였다. ***

延邊自治州는 農業機械化 方面에서 커다란 성과를 올렸는 바 1978년 상반기 現재로 大·中型 경운기가 천 6백 8십 6대, 소형 경운기가 6,700여대이며 기계경작면적은 총 경작면적의 49퍼센트로서 경작지에서 모든 작업을 하며 나중에 가공을 하므로 기본적으로 機械化 및 半機械化를 실현하고 있다. 동시에 農土基本建設의 튼튼한 基礎

* 朝鮮族으로만 이루어진 鄉(鄉은 우리나라의 面에 해당하는 中國의 行政區域單位).

** 중공에서는 행정상의 직책이나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공산당의 당원과 비당원 사이에 현격한 차별이 주어진다.

*** 중공의 화폐 단위는 元, 角(毛), 分으로서 10分=1角, 10角=1元이다. 현재 환율은 약 1元: 250원

위에 처음 꾸준히 높은 생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답 40만여畝를 만들었다. 1978년은 역사상 가뭄이 아주 적은 해여서 풍작을 하게 되어 식량 총생산량은 10억 5천만斤 이상으로서 1978년도自治州 전체의 총생산치는 1977년에 비하여 7.2퍼센트가 증가한 셈이 되었다. 그래서 全州의 人民公社 社員의 수입은 일인당 매년 평균 120여元이 되었다.

延邊自治州 이외의 朝鮮族 거주지의 생산발전 역시 아주 빨라서 吉林省永吉縣의 烏拉街公社 阿拉底大隊의 朝鮮族은 全吉林省의 모범대대가 되었다. 그들이 근 12년간 계속 國家에 제공한 商品糧*은 3천 배 59만 6천斤으로서 평균 매년 263만 3천斤을, 그리고 한 사람당, 매년 평균 1,300斤을 국가에 제공한 것으로 12년동안 매년 일인당 평균 수입은 200元이 되었다.

阿拉底大隊는 農機具修理廠, 벽돌 및 기와공장, 퇴비제조장, 草織品 및 糜米加工場 등을 세웠고, 자동차 3대와 大·中·小型 경운기 17대와 모심는 기계 18대를 공동 구입하였다. 또한 스스로 설계하여 제조한 탈곡기, 育苗播種機, 훑터는 기계 등의 농업 기구로 현재 땅을 뒤엎거나 경작하거나 모심기, 탈곡, 精米, 水利灌溉, 運輸 등 모든 기본적인 것을 기계화 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阿拉底大隊는 1977년 工業 및 農業으로 총수입 126만 7천元을 벌었는데 이것은 1966년에 비하여 95퍼센트가 증가한 것이며 公共基金**은 200만元을 積立하게 되었다. 가장 수입이 높은 때는 일인당 평균 수입은 259元이었으며 1968년부터 新住宅을 건립하기 시작하였는 바 자신들이 생산하는 벽돌과 기와를 사용하고 公共積金을 投資하여 벽돌벽과 기와지붕을 한 주택 109棟을 짓게 되었고, 이미 179가구가 이 새 집에 입주를 했고, 나머지 26가구가 곧 이사 들어갈 예정으로 있다. 黑龍江省寧安縣蓼崗公社 河南大隊 역시 논농사를 위주로 하는 朝鮮族大隊로서 全體 戶數는 32戶이다. 1977년 한해, 1畝당 쌀 1千斤 생산을 돌파하는 목표로 생산전투를 수행한 결과 一畝당 1,140斤의 대총작을 거두어 社員 일인당 227元의 수입을 올렸다. 그들은 1977년에 벽돌기와집 18채를 지어서 32戶의 社員 전원이 넓고 밝은 새집으로 이사를 하였다.

解放前에는 朝鮮族 居住地區의 工業基礎는 아주 낙후된 상태였으며 日本의 독점 차본에 얹매인 殖民地工業이 얼마 있었지만 解放直前에 日軍에 의하여 상당히 심하게 파괴되었다. 그러나 現在 延邊에는 이미 바늘 하나 만들어 내지 못했던 역사를 완전히 청산하고 林業基地를 새로 건설, 확대하여 有色金屬, 煤炭, 電力, 農機製造, 化學肥料, 製紙, 시멘트 등등의 工業을 發展시키게 되었다. 손으로 운전하는 경운기, 디젤유를 사용하는 소형 엔진, 농기구에 사용할 베아링, 물레방아, 발전기, 화학비료 등은 현재 이미 生產을 할 수 있는 단계이고 생산량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서, 화학비료를 예로 들면 연 생산량이 2만 3천여톤에 달하며, 수동식 경운기는 6배 95대로서 1972년에 비하여 1.7배로 증가한 것으로 農業生產에 중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리고 四個現代化的 長征 도중에 延邊의 第一가는 銅礦인 紅太平銅礦은 1979년 5월에 정식 건립된 것으로서 그 기계와 설비는 모두 우리나라에서 제조된 것들이다.

* 商品糧 : 人民公社를 통하여 일정한 量을 國家에 稅金條로 바친 후 나머지는 社員에게 分配되는데 社員은 돈이 필요한 경우 이를 다시 糜食局에다 판다. 이렇게 판 것을 상품량이라 한다.

** 같은 大隊의 福祉 및 特別支出用으로 積立해 두는 기금.

1978년 현재로 延邊自治州 전체에는 鋼鐵, 煤炭, 電力, 機械, 紡績, 有色金屬, 고무, 化學肥料, 製紙, 印刷 등 工場 矿山 企業이 750개, 民族工業工場 62개가 있었다. 1977년 自治州 전역의 工業 總生產은 1952년에 비하여 12.5배가 증가되었고, 동시에 人民의 生活과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는 輕工業 역시 아주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朝鮮族의 生產과 生活의 特徵을 비추어 보면 경공업 부문에서 그들 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生産은 70여 종이 있다는데 예를 들면 조선족 농민은 논의 경작에 사용하는 각종 농기구 및 배(船) 모양의 고무신, 朝鮮族 特有의 요강, 물동이, 치마, 저고리, 바지 저고리 등, 식기, 취사도구, 민족악기 등 전통적인 일용품들로서 그들의 수요를 만족스럽게 충당하고 있다.

工業建設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서 조선족 공업종사 직공의 숫자도 급속히 증가하였다. 延邊朝鮮人 직공은 解放前에는 이 지역 전체 직공수의 20퍼센트밖에 되지 못했으나 현재에는 이미 5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企業에 따라서는 조선인 직공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들도 있다. 즉 延吉市의 電氣廠은 70퍼센트가 조선인 직공이며 技術能力의 배양과 발전의 방면에서 볼 때 本地의 大學과 中等技術學校, 技術工業學校 등이 있어서 매년 計劃에 맞추어 많은 技術人員과 技術工人를 배출해 낸다. 그 외에도 全國의 기타 각지에 있는 高等工業學校와 中等技術學校에서도 많은 조선족 技術人材를 길러내며 동시에 黨과 國家 역시 계획에 따라工人를 선발하여 外地에 보내 학습케 함으로써 현재 自治州 출신의 많은 조선인들이 高級技術人員 및 工程師(엔지니어)가 되었다.

V

朝鮮族 人民의 經濟建設의 끊임없는 번영에 따라, 文化, 教育, 衛生, 文藝 등 사업 역시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解放前에는 日本帝國主義가 악독하기 짹이 없는 奴隸化教育을 실시하여 조선족의 문교사업은 여지없이 찢기고 파손되는 잔학한 처리를 당하였으나 日帝는 조선족들에게 일본말과 일본글을 강제로 사용하게 하였고 조선말과 글의 사용을 금하였다. 만약 한 학생이 한마디 조선말이라도 하면 즉각 체벌이나 벌금을 당하게 마련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創氏改名'이라 하여 姓과 이름까지도 일본식으로 고치게 하였던 것이다.

解放後 1946년에 延吉市는 조선글로 『吉林日報』를 발행하기 시작했고, 그 후 그것은 『延邊日報』로 이름이 바뀌었다. 또한 『黑龍江日報』와 『遼寧日報』가 있는 바 이 두 신문 모두가 조선어版이다. 1947년 延吉市에는 延邊教育出版社가 창립되었으니 주로 조선어로 된 서적과 간행물을 출판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몇해를 지나오는 동안 대량의 교과서, 도서 및 잡지 등을 편집 혹은 번역하여 출판해 왔다. 그 외에도 여러 지방 및 민족 출판사들이 있어 조선어로 된 서적들을 대량으로 출판하였다. 조선어 방송을 주로하는 延邊人民放送局이 있고 이와 함께 中央人民放送局과 黑龍江人民放送局이 中國語와 더불어 朝鮮語로 방송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朝鮮族의 教育事業의 發展은 가장 두드러진다. 1949년 延吉市에 朝鮮族을 위한 新式 綜合大學인 延邊大學이 설립되었으니 이것은 조선족의 문화와 교육의 發展사상 새

로운 이정표가 되었다. 1959년을 전후하여 延邊農學院과 延邊醫學院이 설립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취미농업대학인 黎明業餘農業學院이 세워졌다. 그 외에도 延邊師範學校를 비롯하여 貿易學校, 藝術學校, 衛生學校 등의 專門大學이 설립되었다.

黨과 國家는 少數民族의 大學生을 수용하기 위하여 朝鮮文을 전문적으로 使用하는 考查場을 설치하였는데 그 예로서 1977년 黑龍江省方正縣永建考試區에서는 조선학생들을 위하여 그들의 문자로 대학입학고사를 치르게 함으로써 조선학생들에게 많은 편리를 제공해 주었다.

현재 延邊地區에는 모두 3개의 大學教育機關(종합대학교 1개, 전문대학 1개, 단과대학 1개), 中等專業學校(즉 專門學校) 4개, 中學(中高等學校) 265개교, 小學 1,398개교가 있다. 1952년에 延邊地區에 小學教育이 普及되었고 1958년에 初級中學教育이 기본적으로 普及되었으며 現在에는 高級中學校 教育이 완전히 보급되어 있다.**

東北地方의 各 지역의 朝鮮人 集團居住地區에는 朝鮮語文으로 學習을 진행하는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朝鮮族 學生들만의 小學校와 中等學校들이 專門的으로 설립되어 있다. 吉林市의 朝鮮族中學校는 比較的 우수한 民族 中學校로서 初中學에서 高中學級에 이르기까지 全校生이 모두 기숙사에 수용되며 교과내용과 성적이 質量 모든 面에서 우수하다. 이 학교 졸업생 가운데 內地(중국내륙)의 大學校에 진학한 수백명에 이른다. 黑龍江省의 唯一한 朝鮮族 師範學校는 1978년 五常縣에 정식으로 開校했으며 黑龍江省 전역의 5·6개 市와 縣에서 온 170여명의 朝鮮人 教員지망생들을 받아들여 활발풍부한 意氣 속에서 새로운 學習生活을 시작하였다.

조선족의 한 세대의 高級知識分子들이 이제 완전히 성장을 했다. 그들은 中央國家機關에서 일하는 사람만 수백명이며 北京의 中國科學院 산하 各研究所에서부터 各部處와 委員會의 研究 및 設計機構에 이르기까지 研究員 혹은 設計員으로 종사하는 사람도 수백명에 이르고, 北京의 各大學과 各地의 專門大學 및 단과대학의 教授 및 學生으로 있는 사람 역시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中國科學院 物理研究所에는 朝鮮人만 수십명 있는 것 외에 數學研究所의 朝鮮族青年研究員 가운데에는 최근 副研究員으로 승진한 사람도 있다.*** 또한 冶金部有色金屬研究 方면에는 朝鮮族의 研究人員이 某 연구 프로젝트에서 아주 重要한 研究結果를 이루어내어 국가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解放以來 조선족의 文學藝術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團體들은 계속 성장과 증가를 이루하였다. 延邊自治州에는 延邊文學藝術工作者聯合會, 中國作家協會延邊分會 및 演劇, 音樂, 舞蹈, 美術, 攝影 등 5個 分會들이 잇달아 결성되었다. 이 외에도 延邊歌舞團, 延邊話劇團, 延邊戲曲別院 및 7개 縣市의 文藝工作人團 등 藝術團體들이 있다. 1957년에는 또한 延邊藝術學校가 설립되었다. 조선족의 문학예술 인재를 배양하기 위하여 그 후 계속하여 수많은 조선족의 문예 공작자들을 선발하여 국내의 각 고등예술학교에 보내어 더욱 뚝넓고 깊게 배우게 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조적 단체의 문예간부들도 끊임없이 北京·上海 등지에 가서 참관 및 학습을 하였다. 이와 동시에 풍부한 民間文

* 學院은 단과대학, 大學은 종합대학교를 말한다.

** 中國에서 中學校라 함은 中等教育課程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初(級)中은 우리나라의 中學, 高(級)中은 高等學校를 뜻한다.

*** 研究人員은 研究員, 副研究員은 副教授 또는 副所長級임.

學藝術을 발굴, 정리하는 데에 많은 힘을 기울여 오랫동안 파묻혀있던 ‘農樂舞’ ‘劍舞’ 및 기타 民間音樂, 舞蹈, 詩歌 등의 民間藝術이 다시 햇빛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민족 전통의 예술을 계승하고 발굴하는 작업 가운데 적지 않은 취미작가*들이 출현하였으니 그들은 사람들이 즐겨 듣고 보고 하는 많은 뛰어난 작품들을 창조해 내었다. 예를 들면 農民들 가운데 취미삼아 舞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안무해 낸 ‘부채춤’ ‘頂水舞’** 등은 많은 관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는 것들이다. 專門作家들은 수많은 뛰어난 문예작품들을 창작해내는 바, 이들 작품들은 모두 공산당과 毛澤東主席과 周恩來總理, 朱德委員長 등 대선배 무산계급 혁명가들을 열정적으로 노래한 것들이며 위대한 조국과 각 민족인민들을 노래한 것들이다. 그 외에 毛主席의 詩와 문장 및 기타 우수한 문예작품들을 조선말로 번역, 출판하였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漢族과 기타 형제민족의 문학예술의 정수를 대량 흡수함으로써 조선족의 문예의 ‘수준과 품격은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워지게 되었고 온누리에 춘색이 만연하는 번영을 이루하게 되었다.

延邊의 文藝戰士들은 경애하는 周總理의 깊고 두터운 무산계급의 감정에 대하여 저절로 고개를 숙이며, 그의 80세 탄신을 엄중히 기념하기 위하여 수많은 우수한 프로그램을 짜서 성대한 문예행사를 연출하였다. 그 중에서 周總理가 1962년 친히 延邊을 시찰한 것을 생생하게 그린 대대적인 조선춤으로 이루어진 《紅囊》, 그가 부슬비를 맞아가면서 延吉市長白公社 新豐大隊의 한 가난한 조선농민의 집을 방문한 것을 반영한 여성합창단의 《請親人坐到綉花壁上》과 독창곡인 《新豐貧下中農想念周總理》라는 노래, 그리고 周總理가 여러 차례 延邊文藝工作者들을 친히 접견하던 일을 회상하는 여러 독창과 합창들이 있었고, 또한 周總理와 各民族人民을 친양하고 노래하는 바다같이 깊은 情을 담은 小話劇***, 對口劇****, 朗誦劇 등이 있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풍부한 감정과 진지한 내용으로 강력히 청중과 관중을 감동시켰으며 延邊의 各民族이 경애하는 周총리에 대한 무한한 정열과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였다.

衛生事業 역시 신속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1946년부터 시작하여 각종 의료기관을 건립하였고, 1953년에는 延吉市에 延邊醫院이 설립되어 病床 350개와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갖추었다. 또한 延邊結核病防治院*****, 地方病防治所***** 精神病院, 療養院 등이 있다. 현재 延邊地區 各縣 및 人民公社은 모두 縣立 醫院과 公社 衛生院을 세우고 있다. 대부분의 生產大隊은 자기들의 衛生所를 세웠고 각 生產隊은 모두 保健員, 接生員***** 保育員 등을 갖추고 있어서 醫療와 保健兩面에 모두 밀바탕이 이루되어 있다. 地方病의 예방과 치료, 부녀 및 아동보건과 가족계획 등의 사업 등은 모두 커다란 성과를 올렸으며 국민의 전강은 신뢰할 만큼 보장을 받게 되었다.

* 취미작가(業餘作家) : 전문직업으로서가 아니라 취미나 여가 선용으로 하는 작가.

** 頂水舞 : 물긷는 것을 주제로 한 춤

*** 小話劇 : 간단한 일화 한토막씩을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

**** 對口劇 : 둘이서 말을 주고 받음으로써 對句를 이루어 줄거리를 엮어가는 것.

***** 防治院 : 예방 및 치료병원

***** 地方病 : 풍토병

***** 接生員 : 조산원

延邊地區의 朝鮮族은 漢族과 滿州族 등의 민족과 섞여서 살고 있는데, 해방 후 새로운 民族끼리의 關係가 더욱 공고히 되고 발전하였다. 延邊自治州를 건립한 이후 黨은 民族政策의 宣傳과 집행을 관찰시키는 데 비상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래서 매년 9월을 民族團結을 宣傳하는 달로 정하고 民族團結을 위한 活動을 전개해 나갔다.* 그래서 民族團結의 事蹟은 들판과 산야 도처에 꽂무리가 만발하듯 펼쳐졌으니 延吉縣太興村에는 “鮮漢”이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즉 1954년 太興村에 사는 어느 漢族 부인이 아이를 낳게 되자 朝鮮族 接生員(助產員)은 20여 일을 그 산모를 돌봐 주며 빨래와 식사준비, 청소와 불매기 등을 도맡아서 해 줬고, 그 산모는 이에 감동한 나머지 자기의 갓난아이의 이름을 ‘鮮漢’이라고 지어 朝鮮族과 漢族의 團結을 기념하였다. 또한 1958년 琿春縣의 어느 崔씨 성을 가진 朝鮮族 청년이 강변에서 목욕을 하고 있다가 그만 물결에 휩쓸려 강속으로 빠져 버리자 한 漢族 청년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물 속으로 뛰어들어 그를 구출해 냈다. 漢族青年의 이러한 용감한 행위는 곧 널리 퍼져 한 아름다운 이야기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고 어느 朝鮮族 노인은 감동에 차서 말하기를 “共產黨의 領導는 정말 좋구나, 현재 각기 다른 민족이 서로 단결하여 마치 한집안 식구처럼 친밀하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또한 汪清縣仲安公社興隆大隊에서도 민족단결의 이야기를 남겼다. 이 大隊의 第三隊은 漢族으로 구성된 隊이며 第四隊는 朝朝族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야기는 1960년에 일어난 것으로서, 그해 가을 嘎呀河의 물이 삽시간에 굉장히 불어서 강가의 朝鮮族 四隊 社員들의 생명과 재산이 모두 위협을 받게 되었다. 그 때 三隊에서는 자기 隊의 青壯年 社員이 구원대를 조직하여 휴물아치는 비를 무릅쓰고 마차들을 끌고 第四隊가 있는 곳으로 달려 왔다. 第三隊를 맞은 第四隊는 그들의 농기구와 가축과 농작물의 씨앗 및 社員들의 식량, 가구, 가금(家禽) 전부를 구출해 냈다. 第三隊 社員들은 또한 물을 끓이고 식사를 준비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온돌방을 조선족 사원들에게 주고 자기 자신은 땅 위에 나무판자를 깔고 그 위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홍수가 지나간 후 三隊 사원과 四隊 사원은 함께 힘을 모아 四隊 사원의 집을 수리하고, 크고 작은 마차들을 전부 동원하여 조선족 사원을 되돌려 보내 주었다. 그리고 三隊社員의 대부분은 山東 사람들로서 논벼 재배의 경험이 적어 생산량이 들쑥날쑥이 있는 바 四隊에서는 자기를 가운데 벼농사에 가장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골라서 三隊에 보냈고, 그로부터 三隊의 벼 생산은 해가 갈수록 풍작을 거두게 되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民族의 평등과 단결은 더욱 양양하게 이루어지고 서로 돋고 우애로운 사회주의의 민족관계가 널리 펼쳐지게 되었으니, 이는 19세기 중엽 이래 우리나라 영토로 이주해 들어온 조선족과 여러 다른 민족들이 힘을 합쳐 변방의 강토를 개발하고, 일본제국주의와 국민당 정부에 대항하는 공동의 투쟁 속에서 붉은 피를 흘려 만들어 낸 것이며, 그것은 각 민족이 공동으로 변방의 강토를 보위하고 이 땅의 승리를 보증하는 건설의 원동력인 것이다.

* 여기서 民族團結이라 함은 서로 다른 민족들간의 우호협력관계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